

2024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임팩트 보고서

하이쌤, 하이드이가 함께 만드는 내일의 성장



다섯 번째 이야기

2024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임팩트 보고서

하이쌤, 하이디가 함께 만드는 내일의 성장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은 전국 폐광지역의 중고등학생과 전국 폐광지역 고교 출신 대학생을 연결하는 따뜻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이 보고서는 10개월간 하이디와 하이쌤으로 만나 서로를 도우며 성장한 이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2024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 임팩트 보고서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 최철규입니다.
먼저, 한 해 동안 멘토링 장학 활동에 성실히 임해준 장학생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눈부신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강원랜드에도 큰 보람이었습니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폐광지역 경제 진흥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장학사업 역시 단발성 학업 지원을 넘어 폐광지역 발전의 중심이 되는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폐광지역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8년 강원 남부 폐광지역 4개 시군에서 시작해 경북 문경, 충남 보령, 전남 화순과 같이 전국 규모로 사업을 성장시킨 결과, 2008년 170명에서 출발한 멘토링 장학사업은 어느새 8,595명의 장학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장학금 규모 확대와 같은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면, 2020년부터는 폐광지역 교육 환경을 고려해 청소년, 대학생, 사회인이 함께하는 삼각 멘토링 모델을 도입하며 실효성 있는 지역 인재 육성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교육 장학사업의 성과는 단순히 장학 금액, 장학생 수와 같이 정량적인 지표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에 교육 선순환과 나눔의 정신을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멘토링 장학사업의 미래는 더욱 기대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교육 수혜를 받았던 청소년들이 대학생 멘토로 성장해 다시 나눔을 실천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여러분과 함께 폐광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내일을 기대하며, 장학생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4년 멘토링 장학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신 장학생 여러분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여정이 기쁨과 성취로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애써주시는 사단법인 점프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점프 대표 은초롱입니다.
먼저, '2024년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의 긴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하이샘과 하이드이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 10개월간 여러분은 온라인에서 매주 4시간씩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며 각자의 꿈을 그려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뜻깊은 시간을 통해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감정을 품게 되었는지, 또 어떤 미래를 꿈꾸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하이드이, 하이샘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온 멘토링의 시간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꿈을 구체적으로 그려나가는 의미 있는 과정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도움과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회를 나누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더불어 폐광지역 미래세대의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깊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최철규 대표이사 직무 대행님을 비롯한 강원랜드 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강원랜드 임직원분들의 지역사회를 향한 깊은 헌신과 노력에 사무국 역시 많은 것을 배우며 뜻깊은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사무국은 앞으로도 강원랜드 임직원분들과 함께, 하이샘과 하이드이 모두가 자신의 가치를 믿고, 다양한 기회 속에서 꿈을 설계하며 스스로의 미래를 자신 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세대 간 연결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외부 자원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탄탄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이 교육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축진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에도 더 활기찬 폐광지역을 위한, 변화와 기회의 씨앗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NTENTS

Overview

- 006 사업 소개
- 008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용어 정리
- 009 걸어온 길
- 010 임팩트 인사이드

Comment

나에게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이란 []다.

High1Ship

우리가 쌓은 시간, 그 안의 마음

하이쌤 인터뷰

- 018 태백 이현희
3년간의 멘토링으로 꿈을 향한 토대를 다지다
- 020 삼척 이혜은
책임감, 소속감 느끼며 안정적이고 단단한 어른이 되다
- 022 태백 이은우
내 인생 최고의 도전, 함께 성장하다
- 024 화순 신동하
직접 만나 마음의 거리 허물고 서로의 버팀목이 되다
- 026 정선 김가을
인생의 가치관을 새로 쓰다

하이디 인터뷰

- 028 삼척 조서진
아침 멘토링으로 성실한 하루를, 성적이 올랐어요
- 030 영월 오현호
성실이라는 자산, 하이쌤이라는 롤모델 생겼어요
- 032 정선 황지혜
무엇보다 값진 소속감 느꼈어요
- 034 문경 김지애
같은 전공 하이쌤 통해 진로 찾고 용기도 얻었어요
- 036 문경 김지호
서울대라는 큰 목표에 도전해 합격하는 성공 거뒀죠

마주봄 인터뷰

- 038 성실함과 열정으로 학습 성취도 UP
이세진 하이쌤 + 권경민·권누리·김서영 하이디
- 042 서로에 대한 배려와 성실함으로 취업 성공까지 성취!
고준호 하이쌤 + 이승재·이준우·엄채은 하이디
- 046 비슷한 진로 꿈꾸는 우리, 가족보다 더 끈끈해졌어요!
장혜지 하이쌤 + 유예은·김윤미·박성진 하이디
- 050 형제처럼, 친구처럼 서로 든든한 울타리가 됐어요
유병주 하이쌤 + 김준일·김할루·고혜인 하이디
- 054 경험 나눈, 꿀을 수 없는 인연이 됐어요
정민우 하이쌤 + 김보성·박현우·이도현 하이디

High Program

우리가 보낸 알찬 10개월의 기록

- 060 사전교육
하이디, 하이쌤으로의 마인드 셋
- 062 발대식
하이디, 하이쌤이 되다
- 064 사회인 멘토링
하이쌤, 든든한 지원군을 만나다
- 066 부스팅 캠프
우리 같이 BOOST UP!
- 068 꿈기움 Week
하이디, 꿈을 향해 한 발짝 내딛다
- 070 수료식
더 큰 시작을 위한 우리의 뜨거운 엔딩
- 072 해외탐방/드림스피치
로컬에서 함께 꾸는 우리의 꿈이 글로벌로
- 074 하이ON
우리가 들려주는 우리 이야기

Higher Community

우리가 만든 연결고리

- 078 멘토링데이 IN 로컬
로컬 멘토와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 082 스쿨어택 이벤트
열아홉, 너희의 발걸음을 응원해!
- 084 하이어 커뮤니티 소모임
모일수록 더 단단해지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커뮤니티
- 086 SOS 장학
도와줘, 강원랜드! 도움이 필요한 곳에, SOS 장학 출동
- 090 알럼나이 인터뷰
유강현·함채윤 알럼나이
- 092 사회인 멘토단 인터뷰
송정민·홍주은·이재민·박지영 멘토
- 096 선생님 인터뷰
박정희·이찬영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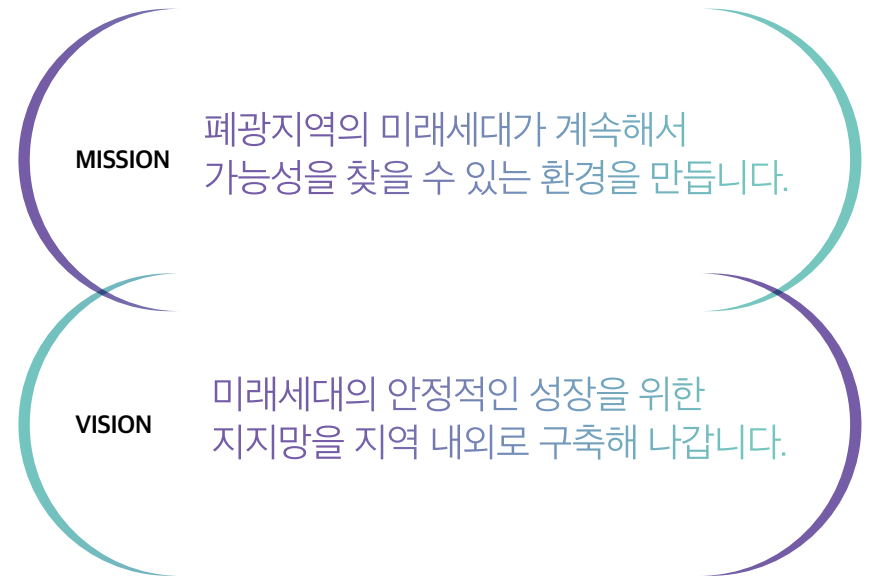
Record

성장의 기록들

- 100 하이쌤 활동 보고서
- 102 하이디 성장 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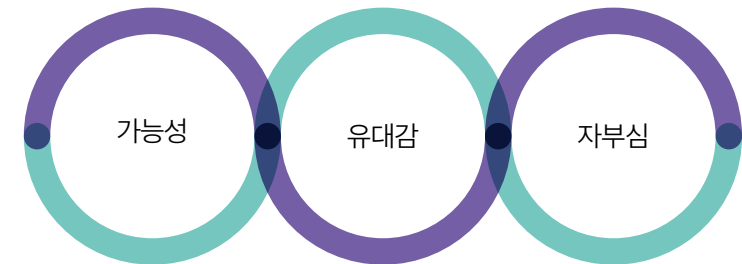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은,

전국 폐광지역(정선·태백·영월·삼척·문경·보령·화순) 중·고등학생 및 전국 폐광지역 고교 출신 대학생에게 생활 안정을 통해 학업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고, 체계적인 교육 및 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해 전인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강원랜드의 대표적인 교육 장학사업입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의 정체성은 미래세대를 위한 성장 지원에 있습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폐광지역 청소년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며, 스스로 발견하지 못한 가능성을 새롭게 찾아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을 통해,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을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끈끈한 유대를 바탕으로 심리적 안도감을 경험하며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커뮤니티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용어 정리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의 핵심 키워드는 '성장'과 '연결'입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울 우리의 언어를 소개합니다.

강-멘장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의 준말.
하이샘 (HI:SAM)	'high'의 'hi'와 '마르지 않은 샘물 같은 선생님'을 의미하는 '샘'을 결합한 멘토 명칭. 청소년의 성장을 견인하고 함께 나아가는 대학생 멘토를 의미한다.
하이디 (HI:D)	'high'의 'hi'와 이모티콘 'D'을 결합한 멘티 명칭. 꿈과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배움을 실천하는 청소년 멘티를 의미한다. 웃는 모양의 이모티콘처럼 밝고 명랑한 청소년 멘티를 표현했다.
알럼나이	졸업생-수료생의 의미를 지닌 영어 단어 'Alumni'를 차용해 활동을 마친 모든 수료생을 통칭하는 용어.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커뮤니티에서 대학생 멘토에서 사회인 멘토로 성장하는 단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삼각 멘토링	청소년-대학생-사회인으로 연결되어 다음 세대의 성장을 돕는 선순환 고리. 하이디가 하이샘으로, 하이샘이 사회인 멘토로, 나눔과 배움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동반 성장 및 나눔의 선순환을 실천할 수 있다.
링커	'연결하는 사람'의 의미로, 커뮤니티 소모임장을 일컫는 명칭.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서로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커뮤니티 소모임이 운영됐다.
하이어 (Higher)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커뮤니티 구성원 모두를 일컫는 명칭. 하이디, 하이샘, 알럼나이, 사회인 멘토. 나아가 학교 선생님, 지역 사회까지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 참여 경험을 가지고 있는 모두를 'Higher'로 통칭한다.

하이하우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의 귀여운 마스코트.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서 하이디와 하이샘으로 변신한 하이하우의 모습도 만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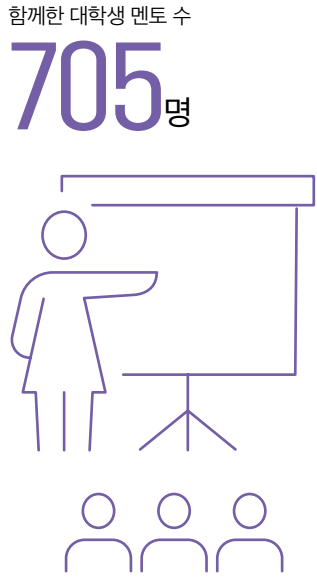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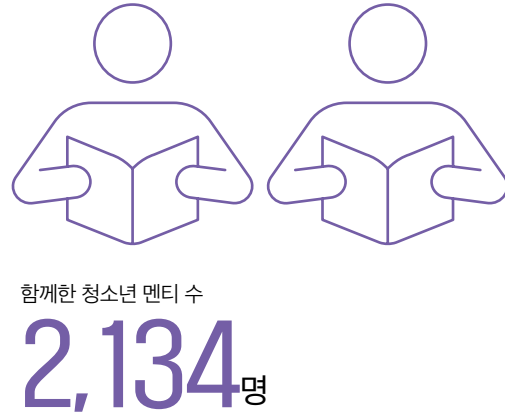


걸어온 길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은 2008년 처음 시작해 16년간 폐광지역 청소년 지원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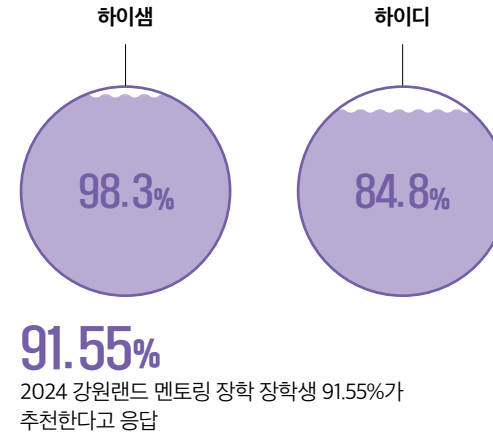
- 2008** **교육 장학사업의 시작을 알리다**
 - 하이원 장학사업 시작
 - 강원 폐광지역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 2011** **수혜 대상을 확대하다**
 - 대학생 지원 시작
 - 강원 폐광지역 고교 출신 대학생 지원
- 2016** **수혜 지역을 확대하다**
 - 중고등학생 수혜지역 확대 (강원 폐광지역 → 전국 폐광지역)
 - 사업 명칭 변경 (하이원 꿈장학 → 강원랜드 장학)
- 2020** **나눔의 선순환, 멘토링의 시작**
 - 온라인 멘토링 및 맞춤형 성장프로그램 도입
 - 예능 장학생 시범지원
 - 장기 지원제도 도입
- 2021** **우리의 임팩트를 알리다**
 - 홍보 서포터즈 '하이ON' 1기 운영
 - 강원 폐광지역 청소년 학습 역량 강화 연구 진행
 - EBS 미래교육 플러스 방영 '꿈의 씨앗을 심는 멘토링'
- 2022** **성장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도전과 변화를 시도하다**
 - 강원 폐광지역 청소년 학습 역량 강화 연구 보고 및 심포지엄 개최
 -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네이밍 공모전 진행
 - 활동 우수 사례 수기 공모전 진행
 - 유튜버 크리에이터 협업 '공부의숲 프로젝트'
 - 활동 최우수자 미국 해외탐방 진행
- 2023** **함께 만드는 내일의 성장, 전국으로 확대하다**
 - 대학생 멘토 선발 지역 및 인원 확대 (강원 폐광지역 → 전국 폐광지역)
 - 강원 외 폐광지역 온라인 멘토링 시범운영
 - sos 장학생 선발지역 확대 및 지원기준 완화
 - 부스팅캠프 시범 운영
 - 리브랜딩 진행
- 2024** **우리의 연결고리를 강화해, 커뮤니티를 확장하다**
 - 청소년 온라인 멘토링 전체 참여
 - 멘토링데이 IN 로컬 신설 운영
 - 커뮤니티 소모임 신설 운영
 - '스쿨어택 이벤트'를 통한 대중 홍보
 - 활동 최우수 해외탐방 참여 대상 및 인원 확대(대학생→대학생, 청소년)

2020~2024년 누적 임팩트 긍정 임팩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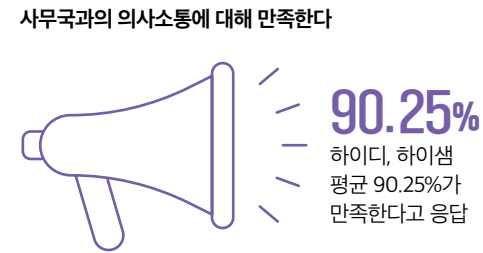


2024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사전·사후 조사 사업 추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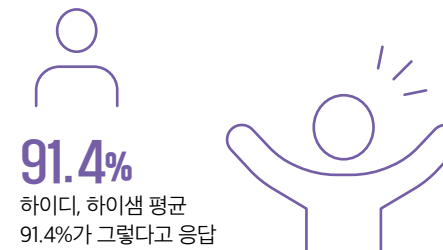
1.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사업 추천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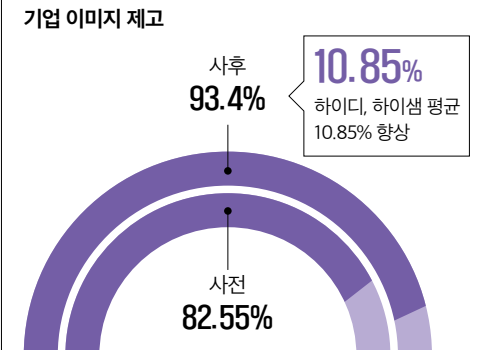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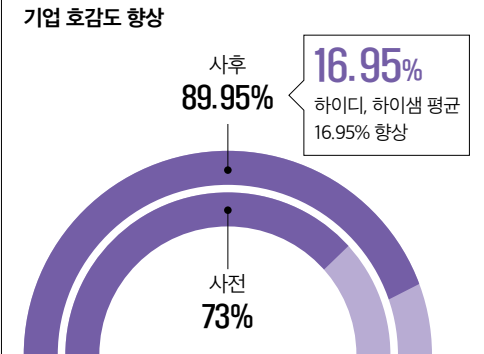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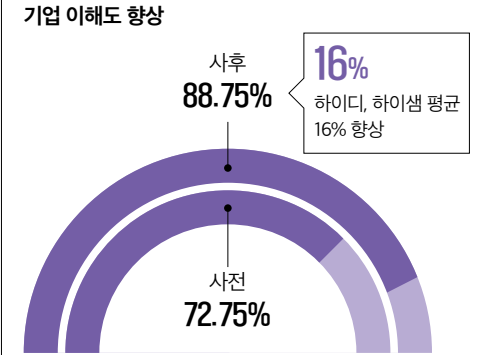
2. 참여자들의 사무국 평가



사무국이 참여자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느낀다



3. 주최기관(강원랜드) 인식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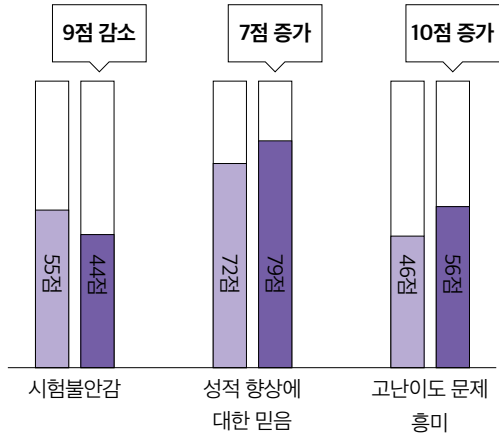


2024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사전·사후 조사

우리들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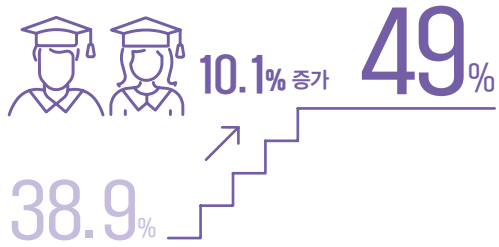
하이디의 성장

1. 학습 역량 강화



3. 진로계획 확장

대학진학 희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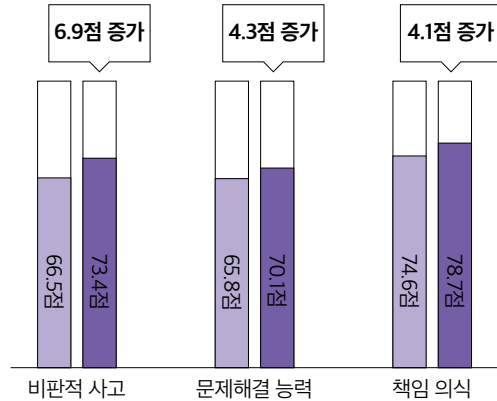


‘하이샐과의 멘토링이 진로탐색 및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에 대한 긍정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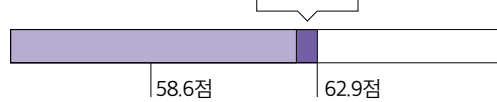
■ 사전 ■ 사후

2. 소프트스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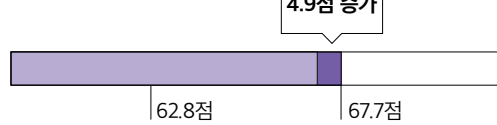


4. 지역 인재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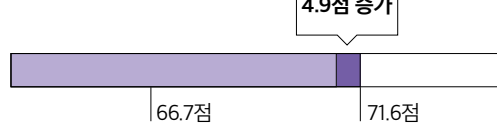
우리 지역에 대한 자부심



지역에 대한 소속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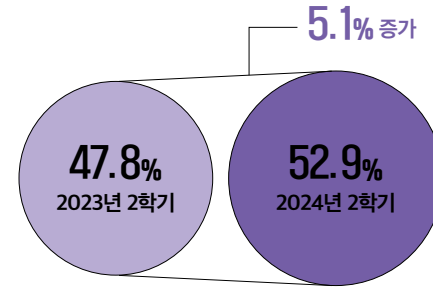
지역사회 기여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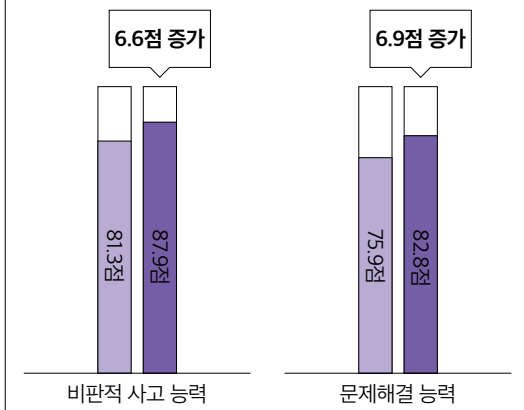
하이샐의 성장

1. 학습 역량 강화

A학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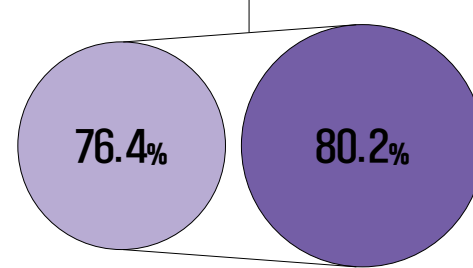


2. 소프트스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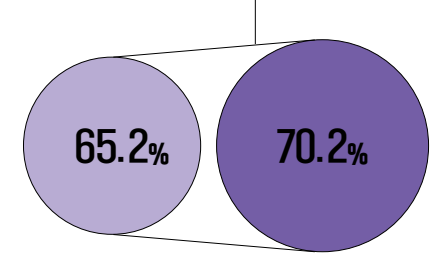


3. 사회적 가치관

사회적 문제 높은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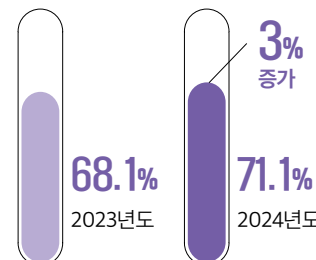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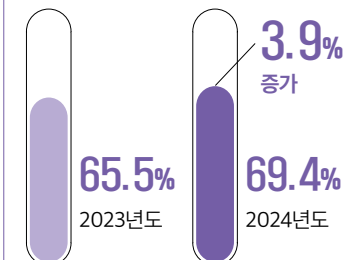


4. 지역 인재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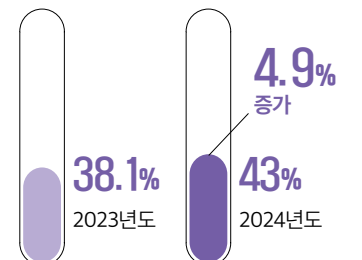
지역에 대한 자부심



지역문제 해결에 관심



장기 거주 의사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넓은 하늘]이다. 탄광에 들어가는
 광부들은 두 하늘을 덮어쓰고 산다고
 합니다. 폐광 지역에서 자란 저희에게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또 다른 넓은
 하늘을 덮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이란 []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흙 속의 진주]다. 내가 열심히 흙을
 파서 찾으면 그 본질이 아주 귀하고
 소중한 그런 커뮤니티 같아요. 저는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소통해서
 소중한 진주 같은 인연을 줄줄이 꿰 수
 있었답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발자국]이다. 활동이 마무리되고
 졸업해도 어디선가 다시 만나
 그 흔적이 끝없이 발견되는,
 한번 만나 만들어지면 사라지지
 않는 성장과 나눔의 기억을
 선물 받고 있어서입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참고서]**다.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같은 문제를 겪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알 수 있고, 비슷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농부]**다.
 씨앗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영양분을
 공급하고, 무력무력 자란 작물을
 정성껏 수확해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농부처럼 우리가 목표를
 향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제공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기 때문이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희망의 다리]다.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멘토링을 통해 현실적 조언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정성]**이다.
 개화하기 전까지 많은 사랑과 정성을
 주어 꽃을 피우게 하듯,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이 장학생들에게 많은
 사랑과 정성을 주어 꽃을 피우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물결]**이다.
 물결의 작은 움직임 하나가 시간이 지나
 더 큰 움직임을 만드는 모습처럼,
 활동할수록 얘기할 것도 많아지고 서로
 영향을 주며 함께 성장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안식처]**다.
 일상에서 지칠 때 커뮤니티 소모임
 활동에서 구성원을 만나면서 힐링을
 많이 받았어요. 또한 제가 좋아하는
 취미를 함께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배경음악]이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그 음악이 없었다면 중요한
 장면도 맛있게 지나갔을 것이다.
 멘토링 장학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이디, 하이샘 그리고 폐광지역의
 다양한 부분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힘을 실어주는 존재다.

High1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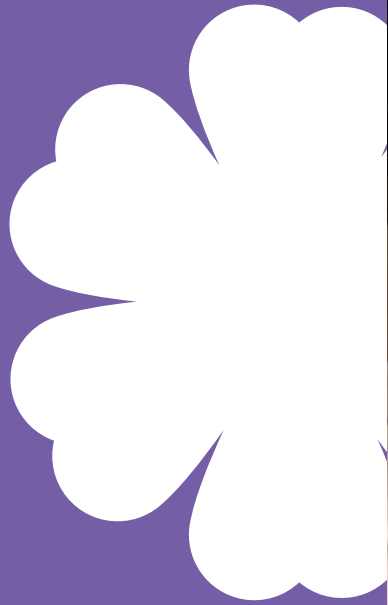
우리들이 쌓은 시간, 그안의 마음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지역을 기반으로 '관계'를 구축합니다.

참여자들은 서로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소통하며, 장학생으로서 더 큰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이디와 하이쌤이 한 팀이 되어 10개월간 서로 울고 웃으며 소통하며 나는

그 공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하이쌤 인터뷰

- 018 태백 이현희
- 020 삼척 이해은
- 022 태백 이은우
- 024 화순 신동하
- 026 정선 김가을

하이디 인터뷰

- 028 삼척 조서진
- 030 영월 오현호
- 032 정선 황지혜
- 034 문경 김지애
- 036 문경 김지호

마주봄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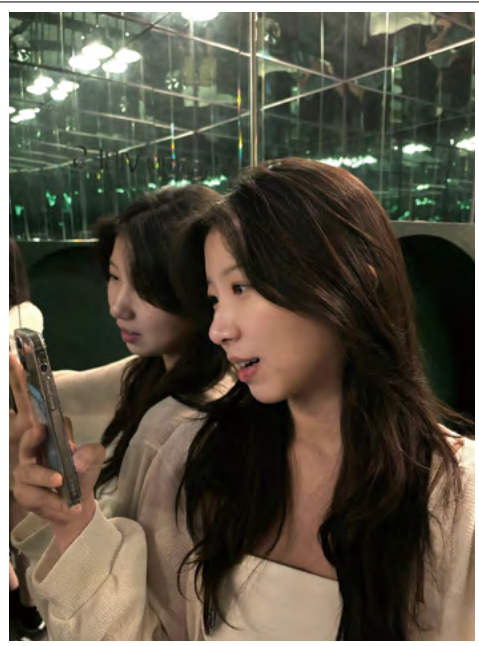
- 038 이세진 하이쌤 + 권경민·권누리·김서영 하이디
- 042 고준호 하이쌤 + 이승재·이준우·엄채은 하이디
- 046 장해지 하이쌤 + 유예은·김윤마·박성진 하이디
- 050 유병주 하이쌤 + 김준일·김할루·고혜인 하이디
- 054 정민우 하이쌤 + 김보성·박현우·이도현 하이디



1

3년간의 멘토링으로 꿈을 향한 토대를 다지다

3년 동안 꾸준히 멘토링을 통해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간접 체험을 한 이현희 하이섬은 진로에 대해 더 확고한 목표와 의지를 찾았다.



태백

이현희 하이섬
3년차 장기 하이섬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색상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3년 차 하이섬 이현희입니다. 저를 색으로 표현한다면 '명도 높은 노란색'이 떠오릅니다! 매사 작은 일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제 주변에도 그 밝음을 전달해 주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멘토링

함께했던 하이디 친구들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하이디와 친해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3년 동안 성실함의 아이콘 송채빈 하이디와, 또 이번에 새롭게 만난 요리사를 꿈꾸는 유하늘 하이디와 멘토링을 함께했습니다. 처음엔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을 준비해 게임도 하고 자기소개도 하며 차근차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시험기간에는 응원의 편지와 기프티콘을, 프로젝트에 잘 참여한 친구들에겐 칭찬 스티커판으로 성실도를 점검하고 보상하는 식으로 이벤트와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하이디와 함께한 시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세요.

하이디들과 진행한 '취미 공유 멘토링'입니다. 진로 멘토링으로 취미 공유 후 서로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채빈 하이디는 기타 연주, 하늘 하이디는 그림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이디들과 공부, 자습, 자격증 시험에 몰두하다 보니 하이디들의 매력, 재능을 깊게 알아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를 통해 한결 더 가까워진 것이 느껴져 좋았습니다. 몽글몽글 힐링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함께한 하이디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언제나 완벽한 멘토링을 하지는 못했겠지만, 너희들 응원하고 위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커. 우리의 멘토링이 모두 마무리되었다는 게 잘 실감 나진 않지만 앞으로도 선생님은 언제나 너희들을 응원할 거야. 하늘이, 채빈이 모두 행복한 학생, 그리고 어른이 되길!

#성장

'하이섬'이라서 의미 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발대식의 하이섬, 알람나이의, 하이디의 공개 질문 토크가 가장 인상 깊습니다. 멘토링에 대한 어려움과 고민을 나누고, 알람나이의 조언을 듣는 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하이섬으로 앞으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목표와 방향성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10개월의 여정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도전 또는 최고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나요? 그것을 통해 어떤 변화를 느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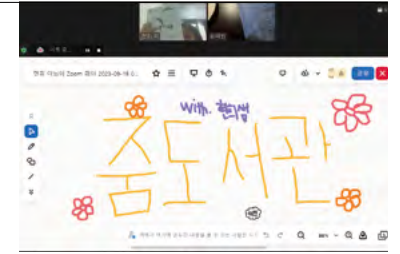
같은 지역인 채빈 하이디와 만나게 되었는데, 매주 화면으로 보다가 직접 대면하니 정말 반가웠습니다. 또 더욱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하이디를 위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커진 것을 느꼈습니다. 확실히 온라인과는 다른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기회를 만들기 쉽지 않지만 다른 하이섬들도 꼭 직접 만나보길 추천합니다.

10개월간 활동한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처음 생각해 보면 10개월이 멀게만 느껴져서 언제 마지막이 찾아오려나? 하며 아무렇지 않게 넘기곤 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끝이 왔네. 한 번도 빠짐없이 꾸준히 멘토링을 진행했던 게 가장 큰 보람이 될 것 같아. 앞으로도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노력과 추억들 덕에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정말 고생 많았어~!

3년 후를 상상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3년 후에 저는 [다음 수업이 기다려지는 교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을 통해 하이디들과 매주 수업을 진행하면서 뿌듯함과 보람을 얻고, 다음 멘토링엔 어떤 것을 할지 고민하고 준비하며 하이디들과 만날 다음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제가 미래에 가르칠 학생들에게도 제 수업이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디와 함께한 줌 도서관 멘토링

#커뮤니티(지역)

하이섬의 지역은 어떤 곳인가요? 그곳의 자랑거리를 함께 소개해 주세요!

'몽토랑 산양 목장'과 '황지연못'이요! 몽토랑 산양 목장'은 스위스 뺨치는 멋진 광경에, 산양 등 여러 동물이 살고 있는 목장입니다. 동물들에게 먹이도 줄 수 있고 예쁜 카페도 있기 때문에 가족, 연인끼리 놀러 가기 좋습니다. 황지연못은 낙동강 발원지이기도 하고, 흥미로운 황부자 며느리 전설도 갖고 있죠. 소원 연못에 동전도 던질 수 있고요.

지역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하이섬-하이디가 서로 유대감을 갖고 있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연결 고리가 많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줌은 온라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라포 형성이 힘든데 수다를 떨면 일단 공감대가 형성되어 어색함이 바로 사라집니다. 또 하이디의 고등학교 진학이나 진로에 관해 그 지역에서 먼저 경험한 선배로서 누구보다 생생하고 현실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기 바라나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을 3년 동안 하면서 매년 같은 프로그램이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변화하며 같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사무국 매니저님을, 그리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하이섬, 하이디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항상 파이팅!

2

책임감, 소속감 느끼며 안정적이고 단단한 어른이 되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하이디에서 하이섬이 된
이혜은 하이섬은 삼척이라는 지역에 대한 더 깊은 애착과
소속감, 책임감으로 한 뼉 더 성장했다.



삼척

이혜은 하이섬
하이디에서 하이섬으로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색상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주변 사람들에게 차분한 이미지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때로는 이런 제모습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확장되는 모습을 추구하고, 대학생이 되어서는 실제로 그렇게 지내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때문에 이 모든 특징을 가진 것은 푸른색 바다인 것 같고, 앞으로는 더 밝고 투명한 빛의 바다가 되고 싶네요!

#멘토링

함께했던 하이디 친구들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하이디와 친해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고2 정하준 하이디, 그리고 고3 안운비, 김정희 하이디예요! 우선, 하준 하이디는 학습에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친구예요! 그래서 학습 멘토링 위주로 진행했는데, 저도 하준이처럼 인강을 들으며 스스로 찾아서 공부해야 하는 환경이었기에 공감대가 통했거든요. 운비 하이디는 저와 대화가 잘 통하고 취미나 관심사에서 비슷한 점이 많았던 친구예요. 정희 하이디는 모든 사람이 좋아할 성격을 가진 친구랍니다. 정희 하이디는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네요! 고3 입시를 하면서도 항상 웃으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뽐여주어서, '서로 웃긴 이모티콘 보내기!'로 쉽게 친해졌던 것 같아요. 고마워!

하이디와 함께한 시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세요.

여운이 남는 에피소드는 운비와 진로상담을 했던 멘토링이었어요! 운비와 저는 이유는 다르지만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운비는 일찍 사회생활을 하게 되어 관심사를 탐구할 여유가 없었고, 저는 빨리 졸업해서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어요. 하이섬과 하이디 모두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꼈는데, 돌파구를 함께 찾아보려고 노력했어요. 운비가 저와 대화할 수 있어서 일상에서 느끼는 답답함이 해소되었다고 해주었을 때 느꼈던 뿌듯함이 정말 컸는데, 그 점이 기억에 남네요!

그동안 함께한 하이디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도 그 나이에 자아를 형성하던 시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하이디들도 각자 다른 방식으로 열심히

자신을 탐구하고 있더라고요. 하준이는 더 효율적인 학습법을 고민하고, 정희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운비는 패션, 음악 취향을 알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하이디들과 그 과정에 조금이나마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하이디들에게 나의 하이섬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싶어요. 낯선 도시에서 의지할 수 있는 같은 지역 선배!

#성장

'하이섬'이라서 의미 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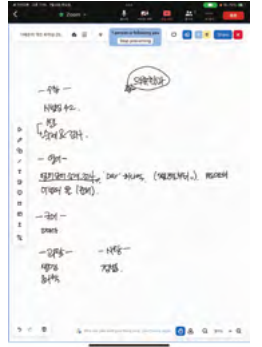
수료식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수료식은 하이섬들에게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이 얼마나 든든한 존재인지 다시금 느끼게 해준 행사였어요.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이섬과 하이디들의 특별하고 소중한 관계를 추억해 볼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다른 하이섬들, 사무국 직원분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지역에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안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거든요! 내가 하이섬이라서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든든하고 의미가 있다고 느꼈던 순간이었어요!

10개월간 활동한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많이 서툴고 우여곡절이 많아서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만큼 하이디들과의 소중한 관계를 얻었고, 마무리까지 멋지게 해낸 내 자신이 기특해! 앞으로 더 잘해보자!

3년 후를 상상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나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고 싶다! 하이섬으로 활동하면서, 나처럼 폐광지역에서 자라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친구들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작은 지역에서 자라 더 넓은 세상을 꿈꾸며 도전했던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2024 멘토링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죠. 3년 후에는 더 많은 지역 후배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성장하고 싶어요.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라,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든든한 길잡이로요.



하이디와 함께한 진로 탐색 멘토링

#커뮤니티(지역)

하이섬의 지역은 어떤 곳인가요? 그곳의 자랑거리를 함께 소개해 주세요!

삼척은 바다와 산이 가까워요! 삼척 쪽으로 가면 아름다운 동해안을 볼 수 있고, 태백 쪽으로 가면 태백산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삼척은 두부가 아주 맛있답니다. 늘 가족들과 맛있는 두부를 맘껏 먹었는데, 저는 도시에 가서야 그걸 알고 아쉬움을 느꼈어요!

지역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하이섬-하이디가 서로 유대감을 갖고 있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하이섬이 지역에서 공부하면서 느낀 어려움을 하이디가 똑같이 갖고 있고 고민하고 있을 때 공감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애뜻하게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도시에서 생활하면서는 공감하며 대화할 사람이 없었던 지역에서 학교 생활에 대해 하이디와 편한 대화로 나누면서, 같은 지역으로 연결되어 좋다고 느꼈어요!

앞으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기 바라나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폐광지역 대학생들에게 지역적 자부심이 들게 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덕분에 제가 자란 지역을 좋아하게 되었고, 항상 하이섬에게 믿음을 갖고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시는 사무국 덕분에 혼자 이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늘 그랬듯 계속 발전할 것 같아요!

3

내 인생 최고의 도전, 함께 성장하다

시집을 만들어 추억을 나눈 하이디와의 시간을 통해 자신도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이은우 하이섬은 가르침에 대한 보람을 경험했다.



태백

이은우 하이섬
하이디에서 하이섬으로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색상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저는 '하늘색'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밝고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구름 같고, 하이디들의 실수를 너그러이 용인하는 마음이 하늘 같아서랍니다.

#멘토링

함께했던 하이디 친구들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하이디와 친해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천희정 하이디는 멘토링 내내 지각없이 열심히 참여해 줬어요. 가끔은 제가 멘토링 도중 실수할 때도 있는데, 괜찮다고 다독여줄 때면 제가 오히려 배우게 됩니다. 이서진 하이디는 단순히 배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넘어, 형아우 사이처럼 지내며 큰 성장을 이룬 듯합니다. 김승민 하이디와는 비록 함께한 시간은 짧지만, 같은 태백 출신이라 동질감을 많이 느꼈어요. 멘토링 활동에서 이런 부분이 보충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즉각 대답하고 최대한 피드백을 수용하여 노력하는데, 하이섬의 입장에서 참 고마웠죠. 하이디와 친해지기 위해서 눈에 띄는 시도보다는 지속적인 방식을 고려했습니다. 인위적인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주 꾸준히 이번 주는 어땠는지, 하고 싶은 활동이 있는지 물어보며, 하이섬으로서 하이디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이디와 함께한 시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세요.

장기 프로젝트인 '시집 만들기'입니다. 평소에는 공부면 공부, 그림이면 그림, 약간의 반복적인 활동이 주를 이뤘던 멘토링에 새로운 바람이 됐어요. 어떤 기분인지 어떤 생각인지, 서로의 이야기를 궁금하게 만드는 활동이었습니다. 시 내용을 고민하는 과정에 내 기분과 생각을 반성하기도 하고, 생전 처음으로 시집을 내기 위해 업체에 연락도 해보는 등 새롭고 이색적인 경험이었어요.

그동안 함께한 하이디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 해 동안 잘 따라와준 너희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나도 하이섬은 처음이라 많이 긴장했고 뭘 가르쳐야 하는지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 너희들에게 좋은 지식들,

즐거운 경험들 많이 주고 싶었기에 걱정과 기대가 더 컸던 것 같아. 카톡으로 처음에 연락을 돌렸을 때는 괜찮았는데, 너희가 줌에 들어오니까 바짝 긴장이 되더라. 하지만 막상 얘기를 시작하니, 신기하게도 긴장이 눈 녹듯 사라졌어. 너희들이 보여준 친절한 모습에 걱정이 하나도 안 되더라. 왠지 첫 멘토링이지만 잘 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내 생각은 들어맞았지. 부족한 멘토링임에도 괜찮다며, 충분히 만족한다며 잘 따라줘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어. 그렇게 한 달 두 달 함께 하는 시간이 쌓였고, 눈 떠보니 여기까지 왔네. 이렇게 한 해가 빨리 갈 줄은 몰랐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훌륭한 너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 1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정말 즐거웠고 고생 많았어. 이번 멘토링에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는 너희만 알겠지. 앞으로도 그 경험을 토대로 더욱 멋지게 나아갔으면, 날아갔으면 해.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

#성장

10개월의 여정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도전 또는 최고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나요? 그것을 통해 어떤 변화를 느꼈는지 들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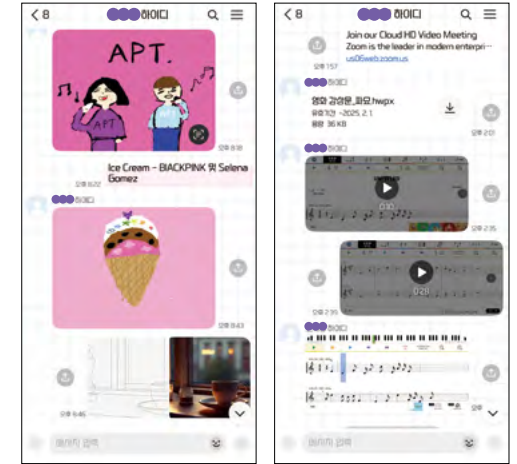
하이섬에 지원한 것. 최고의 도전이었습니다. 나의 부족한 점을 반성하게 되며, 반대로 나아갈 길을 비춰주었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가르친다는 것이 보람차다는 건 모르지 않으나, 가르치는 것은 끊임없이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10개월간 활동한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설렘 반, 걱정 반, 그 첫 시작에서 결국 해냈구나 나 자신아. 고생했고, 가능하면 내년에도 고생해 보자. 보람되었자나!

3년 후를 상상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저는 [진정한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하이섬을 바탕으로 누군가를 이끄는 활동, 멘토링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더 넓은 곳에서 활약하고 싶습니다.



하이디들과 나눈 대화들

#커뮤니티(지역)

하이섬의 지역은 어떤 곳인가요? 그곳의 자랑거리를 함께 소개해 주세요!

태백은 우선 깨끗한 공기와 쾌적한 날씨가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백에 한 번이라도 와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공기가 굉장히 맑거든요. 더운 날 특유의 끈적함도 없고, 미세먼지 걱정도 없습니다. 여름에 굉장히 시원한데, 기상청 자료 기준 1980~2024년까지 열대야 일수가 단 한 건 (1일) 존재할 정도입니다. 두 번째 자랑거리는, '눈'입니다. 왜 자랑거리로 삼을 정도냐, 굉장히 많이 내리는 눈도 한뼘하고, 매년 태백시 눈꽃 축제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눈 조각상들과 아름다운 조명들로 이뤄진 전경을 보고 싶다면, 반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앞으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기 바라나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이미 훌륭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발전을 논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부담 없이 참여할 만한 단기적인 프로그램이 약간 더 추가된다면 좋겠습니다.

4

직접 만나 마음의 거리 허물고 서로의 버팀목이 되다

온라인 밖에서 직접 하이디와 만나 진심으로 응원하며, 버팀목이 되어주길 자처한 신동하 하이섬의 멘토링은 하이디와 바른 관계 만들기의 정석과도 같다.



화순

신동하 하이섬
하이디와의 관계 형성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색상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하는 저의 색은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이 상징하는 '성장'과 '힐링', 그리고 '생기'가 제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에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고 싶었는데, 초록빛이 주는 따뜻한 느낌이 제가 지향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멘토링

함께했던 하이디 친구들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하이디와 친해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제가 담당한 하이디는 정순주, 문주영, 나도원 하이디 세 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낯설어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이를 풀기 위해 제가 직접 만든 '자기소개 PPT'를 활용했습니다. PPT에는 제 취미, 성격, 좋아하는 음식 등을 담았고, 마지막에는 퀴즈 이벤트를 넣어 기프트콘도 걸었어요. 이후에는 각자의 속도에 맞춰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친해졌습니다. 특히 부스팅 캠프에서 실제로 만나면서 더 빠르게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하이디와 함께한 시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세요.

문주영 하이디와 진행했던 '오프라인 멘토링'이었습니다. 온라인만으로는 알기 어려웠던 이야기들도 나누게 되었고, 서로의 고민을 더 깊이 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멘토링이 끝난 뒤에는 함께 밥을 먹으며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함께한 하이디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부족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를 멘토링인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잘 따라와 준 하이디들 덕분에 저도 멘토로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종종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고민했던 순간도 있었는데, 하이디들이 먼저 "괜찮아요!"라고 말해주서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늘 긍정적이고 밝게 반응해 준 모습에 매 순간 감사했고, 저도 더 잘해주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됐어요. 이제는 제가 없어도 잘 지낼 것 같아서 든든하지만, 앞으로도 늘 응원하고 있을게요!

하이디와 오프라인 멘토링을 기념하며



#성장

'하이섬'이라서 의미 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하이디들과 첫 대면을 할 수 있었던 '부스팅 캠프'가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온라인에서만 보던 하이디들을 직접 만나니 그동안 못 나눴던 이야기를 얼굴 보면서 털어놓을 수 있었고, 분위기도 한층 화기애애해졌습니다. 다른 하이섬들을 직접 만나 멘토링 진행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공유할 수 있던 것도 좋았고요.

10개월의 여정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도전 또는 최고의 선택은 어떤 것인가요? 그것을 통해 어떤 변화를 느꼈는지 들려주세요.

처음엔 불안했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한 나 자신에게 '고생했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하이디들을 위해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책임감 덕분에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이디가 '덕분에 힘이 났다'고 말해줄 때마다 그만큼 뿌듯하고 기쁨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간직하며, 어떤 일이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3년 후를 상상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저는 영화 '캐스트 어웨이'의 배우공 '윌슨'처럼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윌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주인공에게 큰 위로가 되었듯이 저도 곁에 있는 것만으로 누군가에게 위안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멘토링 활동을 통해, 때로는 고민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배웠거든요.

#커뮤니티(지역)

하이섬의 지역은 어떤 곳인가요? 그곳의 자랑거리를 함께 소개해 주세요!

제가 사는 화순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곳으로, 자연과 역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먼저, '운주사'는 천 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한 사찰로, 소박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의 수많은 석불과 석탑이 인상적인 곳입니다. 사찰 경내를 따라 석불들을 감상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차분해지고, 깊은 힐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랑거리는 '동구리 저수지'입니다. 주변에 잘 정비된 산책로가 있어 주민들은 물론 방문객들에게도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탁 트인 저수지 풍경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걷다 보면, 화순의 맑은 공기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지역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하이섬-하이디가 서로 유대감을 갖고 있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저와 하이디들은 학교가 달랐지만, 그래도 지역 내 맛집이나 명소를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쌓았습니다. "혹시 이 식당 가봤어? 여기 음식 진짜 맛있어!" 이런 식의 대화는 '우리 동네 이야기'를 편하게 꺼내게 만들어줬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음식이나, 함께 가보고 싶은 장소를 이야기기도 했고, 이런 소소한 공통점이 오히려 강력한 연결고리가 되어준 것 같습니다. '만연산'이나 '동구리 호수공원' 같은 공간을 공유한 덕분에 "여긴 진짜 좋으니 꼭 가보라"는 식으로 얘기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기 바라나요?

지금도 충분히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이섬과 하이디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폐광지역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다양한 정보를 전해주니까요. 다만, 이 프로그램이 더 많은 친구들에게 알려져서 더욱 풍성한 멘토-멘티 매칭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금처럼 따뜻한 마음과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으로, 앞으로도 오랫동안 청소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응원합니다!

5

인생의 가치관을 새로 쓰다

멘토링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는 특별한 경험을 한 김가을 하이섬. 열정을 갖고 하이디와 꾸준한 관계를 맺다 열린 새로운 세계를 말한다.



정선

김가을 하이섬
하이디와의 관계 형성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색상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선 지역 하이섬 김가을입니다. 강원도의 푸른 자연에서 자라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살길 원하는 저를 표현하자면 푸른 계열, 정확히는 산의 따뜻함과 바다의 시원함을 담은 '청록색' 같네요.

#멘토링

함께했던 하이디 친구들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하이디와 친해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정선 지역의 부끄럼 많지만 손재주가 좋은 연정 하이디, 공부를 좋아하고 열정이 가득한 하음 하이디, 그리고 삼척지역의 피아노와 음악을 좋아하는 보라 하이디와 같이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하이디의 얘기를 듣고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친구들과 친해지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이디와 함께한 시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세요.

하이디마다 성향이 다르지만, 각자가 좋아하는 활동에 대한 의지가 가득한 하이디들과 만나 멘토링을 한번 할 때 3시간에서 길게는 최대 5시간까지 연달아 진행해 본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할 때는 1시간도 힘들어하던 하이디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집중력이 엄청 올라가는 것을 보고 저도 덩달아 열정을 하다 멘토링을 진행했던 기억이 가장 소중한데요!

그동안 함께한 하이디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일 처음 만났던 우리 연정이! 10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꾸준히 같이 걸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하음이! 부족한 나 많이 믿고 의지해주고 항상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나도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보라!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게. 너희들과 함께라 너무 행복했어!



1



2

- 1 하이디와 함께한 독서 멘토링
- 2 정선의 아름다운 풍경

#성장

'하이섬'이라서 의미 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보령 지역에서 하는 '멘토링데이 in 로컬'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단순한 관심사를 넘어 저의 진로와 관련해 예술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어서 하이섬으로 활동하기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0개월의 여정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도전 또는 최고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나요? 그것을 통해 어떤 변화를 느꼈는지 들려주세요.

사실 멘토링을 연달아 몇 시간 동안 진행하는 게 쉽지 않은 도전이었는데, 하이섬으로써 하이디에게 최선을 다해주고 싶어 진행하다 보니 저의 집중력도 올라가고, 몰입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열정도 얻게 되어 가장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0개월간 활동한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정말 우여곡절 많았지만 10개월 동안 쉬지 않고 꾸준히 해온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의 너가 존재한다고 생각해. 수고 많았어. 앞으로도 힘내자!

3년 후를 상상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처음 하이디들과 만났을 때는 학습 성취가 멘토링 장학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공부 위주의 멘토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함께한 추억이 쌓이게 되면서 공부 말고 하이디들 각자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하이디들의 다양한 재능과 관심사를 보면서 공부가 세상의 다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느끼게 되었어요. 이런 개인의 생각을 더 존중해 줄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커뮤니티(지역)

하이섬의 지역은 어떤 곳인가요? 그곳의 자랑거리를 함께 소개해 주세요!

정선은 산과 산 사이 위치한 숲세권의 자연과 야생화가 피어나는 마을입니다. 여름에 푸른 하늘 밑에서 맞는 바람이 정말 시원하고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 그리고 알록달록한 산의 풍경이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모기가 없어요. 정말 좋은 여름 날씨와 자연, 그리고 모기가 없는 것까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 지역의 장점이에요!

지역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하이섬-하이디가 서로 유대감을 갖고 있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같은 거리를 걸었던 기억을 공유했을 때, 그리고 지역의 역사와 현재를 공유할 때 유대감을 느껴요. 같은 지역에 살지만 다양한 서로의 기억이 지역의 모습과 역사를 다채롭게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기 바라나요?

10개월 동안 응원해 주시고, 서포트해 주신 멘토링 장학 매니저님들, 잘 따라와 준 세 명의 하이디들까지 더할 나위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폐광지역 출신 학생 간의 커뮤니티 형성이라는 목적을 잘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파이팅!!!

1

아침 멘토링으로 성실한 하루를, 성적도 올랐어요

의심을 거두고 일단 시작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조서진 하이디의 10개월은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채워졌다. 그 결과 얻은 건 오른 성적, 그리고 하면 된다는 자신감.



삼척

조서진 하이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사물, 동물 등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저는 '물'과 비슷합니다. 물은 어느 모양이든 어느 곳이든 그 자리에 맞게 흘러가고 또 변하죠. 또 물감 한 방울에 따라 색이 바뀌기도 하고요. 꼭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처럼요.

#멘토링

하이샘은 어떤 분인가요? 짝꿍 하이샘을 소개해주세요!

저의 하이샘 민찬역 하이샘은 굉장히 착하시고 부지런하세요. 하이샘과 아침에 멘토링하면서 저는 더 하루를 빨리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에게 많은 힘을 주시는 분이예요! 항상 적극적으로 수업하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세요.

하이샘과 함께한 시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세요.

새해가 되면서 하이샘과 함께 버킷리스트를 작성한 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서로 일상을 공유하는 대화를 하면서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즐거웠어요!

그동안 함께한 하이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서 많이 가르쳐주셔서 감사하고, 선생님 덕분에 성적도 오르고 시험기간에 힘을 주셔서 멘토링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10개월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하이샘과 함께해서 좋은 시간이었어요. 가장 가깝게 지냈던 하이샘이었어요! 제 하이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장

'하이디'라서 좋았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멘토링 이외에 참여했던 프로그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후기를 들려주세요.

꿈키움 WEEK에서 다른 학생들은 듣기 어려운 조언이나, 과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부스팅 캠프에서 학교에서만 만나는 친구들이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10개월간 활동한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10개월간의 행동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가슴 깊은 곳에 남겨둘게. 당시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하며 수많은 의심을 했지만, 너의 그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의 나를 더 나은 나로 만들어줬다. 앞으로도 더 나은 내가 되도록 노력할게!

3년 후를 상상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남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제 하이샘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런 도움이 머릿속에 남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인상을 남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커뮤니티(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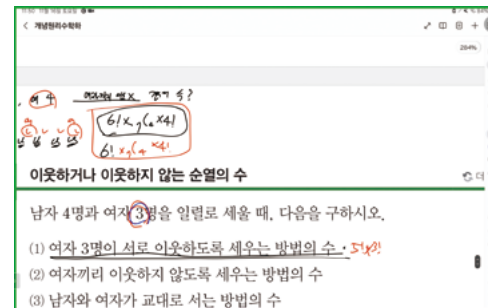
하이디의 지역은 어떤 곳인가요? 그곳의 자랑거리를 함께 소개해 주세요!

우리 삼척은 공기가 좋고, 노을지는 풍경이 일품인 곳입니다. 겨울이나 봄 벚꽃이나 눈이 오는 날에는 그 아름다움이 더 돋보이는 지역입니다

지역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하이샘-하이디가 서로 유대감을 갖고 있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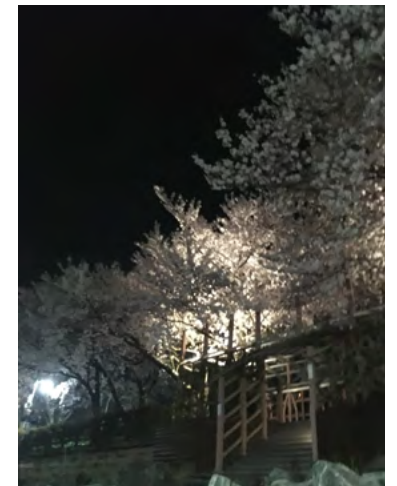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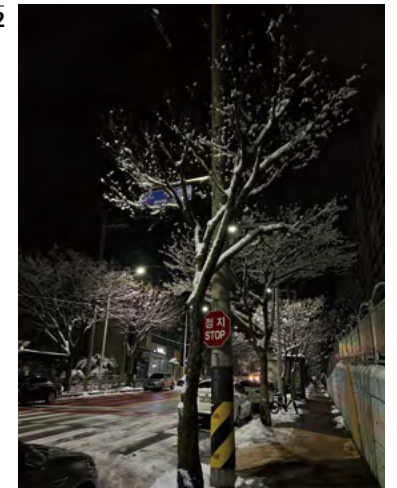
제가 알고 있는 맛집이나 익숙한 길을 하이샘이 이야기해 주실 때마다 약간 내적 친밀감이 더 생기는 거 같아요.

1



- 1 하이샘과 함께한 수학 멘토링
- 2 서진 하이디가 좋아하는 삼척의 야경

2



2

성실이라는 자산, 하이쌤이라는 롤모델 생겼어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멘토링에 참여한 오현호 하이드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다. 바로 자신의 하이쌤처럼 더 성실하고 상냥하고 다정한 어른이 되는 것이다.



영월

오현호 하이드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사물, 동물 등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저는 제가 '비버' 같다고 생각해요. 비버는 큰 덩치에 비해 부지런하답니다. 저는 10개월간 학사 일정을 제외하면 보강을 한 적도 없고, 수업도 꾸준히 나왔고, 숙제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한 모습이 비버 같아요.

#멘토링

하이쌤은 어떤 분인가요? 짝꿍 하이쌤을 소개해주세요!

김주현 하이쌤은 대학교에서 역사를 배우는 하이쌤입니다. 하이드의 입장을 배려해 주시고, 착하고 성실하시고 꼼꼼하세요. 또 여러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공감도 잘 해주십니다. 다양한 주제와 새로운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줘서 고맙웠어요.

하이쌤과 함께한 시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세요.

하이쌤 전공이 역사인 만큼 초반에 역사 수업을 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그대로 읽지 않고,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관련 이야기를 신나고 재미있게 해주셔서 이해하기 정말 쉬웠어요. 예를 들어,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에는 모계사회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시대적 상황과 연관 지어서 자세하고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동안 함께한 하이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김주현 하이쌤과 함께한 10개월 동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이드를 위해서 항상 열심히 수업 준비해 주시고, 노력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주현 하이쌤의 주제 정할 때도 어떻게 하면 하이드가 부담 안 가지고 수업에 임할 수 있는가를 항상 걱정하시고 생각하시고 고민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이드에게 누구보다도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장

'하이드'라서 좋았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멘토링 이외에 참여했던 프로그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후기를 들려주세요.

김주현 하이쌤을 통해 역사 등을 많이 배우고, 부족한

점들을 채워가며 새로운 경험과 추억을 쌓을 수 있던 시간들입니다.

10개월간 활동한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10개월 동안 수고 많았고, 새로운 경험과 추억들 잊지 말고, 꼭 기억하고,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하고 고생 많았다!

3년 후를 상상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나는 김주현 하이쌤처럼 [성실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 되고 싶다!

#커뮤니티(지역)

하이드의 지역은 어떤 곳인가요? 그곳의 자랑거리를 함께 소개해 주세요!

저의 지역은 영월로, 별마로 천문대가 있어서 달이나 행성, 별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릉, 청령포 등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지역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하이쌤-하이드가 서로 유대감을 갖고 있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다른 하이쌤과 하이드를 보면, 다른 지역을 배정받은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운이 좋게 같은 지역 하이쌤과 멘토링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이쌤이 영월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만큼, 제 학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고 계시고, 영월의 맛집이나 핫플을 모두 다 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같은 지역인만큼 소재가 많고 다양했고 멘토링 내내 덕분에 재밌고 신나게 대화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기 바라나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이 앞으로도 많은 하이쌤과 하이드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화이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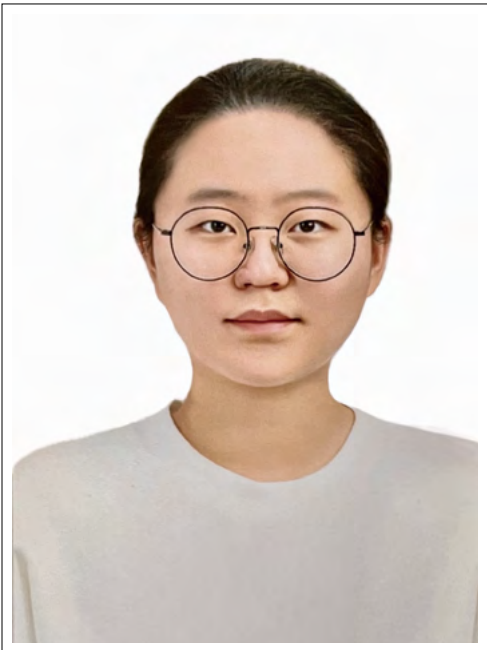


영월의 문화유산, 장릉

3

무엇보다 값진 소속감 느꼈어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활동을 통해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안정감과 사회적 성취감을 느낀 황지혜 하이디의 최근 희망은,
바로 하이쌤처럼 성실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정선

황지혜 하이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사물, 동물 등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올빼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혹은 친한 친구들 소수와 어울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밤 늦게 혼자 드라마를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런 면이 야행성이고 단독생활을 하는 올빼미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멘토링

하이쌤은 어떤 분인가요? 짝꿍 하이쌤을 소개해주세요!

저의 최나리 하이쌤은 먼저 '준비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날 배우게 될 내용을 설명한 자료 등을 멘토링 전에 항상 미리 찾아보시고, 제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면 준비해 놓은 참고 영상을 바로바로 가져와서 보여주시는 것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이쌤과 함께한 시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세요.

멘토링을 하면서 가끔 영화나 소설을 같이 보고 감상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윤리와 사상과 생활과 윤리 수업을 했는데, 카프카의 <변신>을 철학서를 근거로 삼아 해석한 것이 흥미로웠고, 문학과 윤리 수업을 융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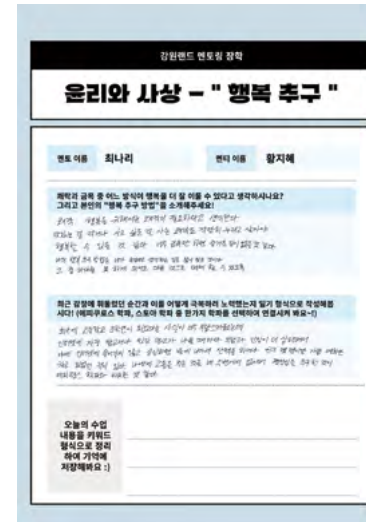
그동안 함께한 하이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멋있었습니다. 수업을 위해서도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미래를 위해서 자격증도 따시고 한국사 공부까지 하시는 모습을 본받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항상 준비된 분이실 것 같습니다. 하이쌤처럼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뭘 하면 좋을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곧바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장

'하이디'라서 좋았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멘토링 이외에 참여했던 프로그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후기를 들려주세요.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하이쌤과 함께한 멘토링 기록지

감사하고 기뻐지만, 하이디로서 '소속감'을 느낄 때 가장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또 다른 하이디인 친구와 멘토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 온라인으로 다른 하이디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때 이 프로그램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10개월간의 여정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도전 또는 최고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나요? 그것을 통해 어떤 변화를 느꼈는지 들려주세요.

저는 체력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고 공부를 하려면 체력도 필요하다는 조언을 듣고 나서 체력을 기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밖으로 나가서 운동장을 걸었습니다. 부슬비가 오거나 눈이 내려도 그냥 나가서 조금이라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20분만 걸어도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3시간 정도 계속 걸어도 괜찮은 정도가 되었을 때 정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10개월간 활동한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처음 멘토링 수업을 해야 한다는 걸 들었을 때는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하이쌤과 함께

공부하다 보니 확실히 전에 비해 학교 수업도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을 신청하기로 하고 꾸준히 활동해 온 자신에게 잘 선택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3년 후를 상상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하이쌤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제 하이쌤을 본받고 싶습니다. 같이 활동하면서 하이쌤께 공부에 관한 도움도 받았고,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이쌤께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해서 붙었다는 이야기나 열심히 아르바이트했던 얘기 등을 들으며 저도 하이쌤처럼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커뮤니티(지역)

하이디의 지역은 어떤 곳인가요? 그곳의 자랑거리를 함께 소개해 주세요!

제가 사는 지역은 정선군 임계면입니다. 정선은 자연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백봉령에는 새해에는 일출을 보러, 평소에는 웅심이나 막국수 같은 음식을 먹으러 많은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장점 같습니다. 자연이 가까워 계절마다 다른 꽃, 겨울에 내린 눈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역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하이쌤-하이디가 서로 유대감을 갖고 있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대학 진학 때문에 서울에서 살게 되면서 느낀 점 등에 대해 말해주실 때, 저와 하이쌤 둘 다 비슷한 지역 출신이라 나중에 저도 하이쌤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기 바라나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이 앞으로도 폐광 지역 청소년들에게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폐광 지역 출신의 청소년과 대학생들끼리 교류할 있는 기회가 되는 것도 좋겠습니다.

4

같은 전공 하이쌤 통해 진로 찾고 용기도 얻었어요

‘용기’와 ‘도전’이라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를 느끼게 해준 하이쌤과의 멘토링은 김지애 하이디가 진로를 향해 굳게 걸어가 자양분이 되었다.



문경

김지애 하이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사물, 동물 등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수달’입니다. 외면적인 부분에서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입니다.

#멘토링

하이쌤은 어떤 분인가요? 짝꿍 하이쌤을 소개해주세요!

서유현 하이쌤은 저와 비슷한 계열인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조언을 받기도 하고 질문하며 궁금증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디자인과 연관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진로 중 배우고 싶은 전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하이쌤은 ‘용기와 도전을 주는 사람’입니다.

하이쌤과 함께한 시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세요.

하이쌤과 브랜드 광고 영상을 만들었던 멘토링이 기억에 제일 남습니다. 자료를 먼저 찾아 PPT로 만들고 피드백을 듣고 만든 영상이라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처음 만들어 보는 영상이라 두려웠지만, 하이쌤과 함께 하니 크게 어려운 것 없이 순차적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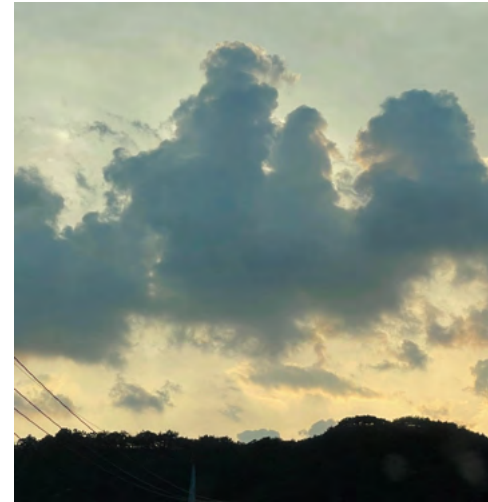
그동안 함께한 하이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1년 동안 고등학교 수업부터 대학교 진로 상담까지, 학교 선생님보다 유현쌤에게 더 많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성장 프로그램도 다른 하이디와 같이 참여하여 추억을 쌓고 소통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긴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

10개월간의 여정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도전 또는 최고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나요? 그것을 통해 어떤 변화를 느꼈는지 들려주세요.

‘드림 스피치’에 나간 것입니다. 사실 저는 나서거나, 무언가에 참여하는 것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팀 프로젝트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도전’이라는 키워드가 생겼습니다. 일단해보자는 마인드로 하고 싶은 건 눈치 보지 말고 해보고 안 되거나 힘들면 그때 안 하면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과



문경의 노을



지애 하이디가 체험한 문경 찻사발축제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10개월간 활동한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도전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해보자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3년 후를 상상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저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때 진로 고민으로 힘들었던 시기에 하이쌤이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발표도 해보고 진로인 디자인도 배우고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던 것은 옆에서 응원과 격려해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뭐든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커뮤니티(지역)

하이디의 지역은 어떤 곳인가요? 그곳의 자랑거리를 함께 소개해 주세요!

문경은 우리나라에서 전통 도자기가 발달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문경 도자기는 천연 유약을 사용한 전통적인 기법으로 만들어져서, 독특한 색감과 질감을 자랑합니다.

문경에서 열리는 문경 찻사발축제도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자기를 직접 체험하러 방문합니다. 저도 축제에 가서 찻사발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지역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하이쌤-하이디가 서로 유대감을 갖고 있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하이쌤과 하이디가 문경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통해 유대감을 느낄 때는 문경새재, 오미자, 전통 도자기 등 지역의 특산물과 명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등산을 많이 갔다가 사과가 맛있다는 등 대화를 하면 유대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기 바라나요?

하이디들에게 많은 경험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처럼 많길 바랍니다!

5

서울대라는 큰 목표에 도전해 합격하는 성공 거뒀죠

하이샘과 함께 다양한 진로의 세계를 탐구하고, 입시에 맞춰 대비한 김지호 하이드는 서울대, 동국대 등 명문대에 합격하며 도전하고 노력하면 된다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자신감을 얻었다.



문경

김지호 하이드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사물, 동물 등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내기 때문이에요.

#멘토링

하이샘은 어떤 분인가요? 짝꿍 하이샘을 소개해주세요!

나의 하이샘은 항상 차분하지만 모든 일에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습니다.

하이샘과 함께한 시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세요.

수능 전에는 하이샘이 국어, 영어와 같은 내가 잘 못하는 과목에 대해 멘토링을 해주셨고, 수능 후에는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대학교 원서를 어디 넣을지 하이샘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수능 끝나고 대학생들과 진로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한 하이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태까지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나중에 큰물에서 다시 만납시다.

#성장

‘하이드’라서 좋았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멘토링 이외에 참여했던 프로그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후기를 들려주세요.

첫 장학금을 받았을 때 가장 좋았죠. 어디에 쓸지 행복한 고민을 했어요. 돈 걱정이 줄어서 좋았던 면도 있고요. 꿈키움 WEEK에 참여한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대학교의 여러 전공을 알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진로의 폭이 넓고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0개월간의 여정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도전 또는 최고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나요? 그것을 통해 어떤 변화를 느꼈는지 들려주세요.

서울대에 원서를 써본 것입니다. 서울대(응용생물화학부)에 원서를 쓰고, 합격해서 학교에서 현수막을 걸어주고, 장학금을 주어서 뿌듯했습니다. 또 동국대 한의예과에 합격해 입학하게 된 것도 아주 기쁘고요.

10개월간 활동한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10개월간 너무너무 수고했고, 앞으로는 대학에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하고싶은 것도 많이 해보자!

#커뮤니티(지역)

하이드의 지역은 어떤 곳인가요? 그곳의 자랑거리를 함께 소개해 주세요!

문경은 아름다운 산과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어, 관광지로 인기가 많습니다. 자랑거리는 문경새재와 오미자입니다. 문경새재의 새재는 ‘새도 넘어가기 힘든 고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때는 문경새재가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을 막는 국경선이었다고 해요. 또 지역 특산물인 오미자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로를 해소하는 등의 효능이 있고요.

앞으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기 바라나요?

앞으로도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이 저처럼 경제 상황이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 그들의 꿈을 이뤄주면 좋겠습니다.



지호 하이드의 서울대 합격을 알리는 현수막



문경의 문경새재

성실함과 열정으로



이세진 하이쌤

학습 성취도 UP

멘토링 프로그램 전원 참석률 100%를 자랑하는 이세진 하이쌤 팀은 열정과 성실함으로 각자의 부족한 학습을 놀라운 기세로 채울 수 있었다. 각자의 진로에서 다시 만나길 바라는 이세진 하이쌤 팀의 반짝이는 이야기들.

이세진 하이쌤 + 권경민·권누리·김서영 하이디



서영 하이디가 찍은 보령의 바다



권경민 하이디

하이쌤, 하이디 모두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세진 안녕하세요. 저는 화순 지역 하이쌤 이세진입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이 교사였는데, 현재는 다양한 분야로 꿈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경민 안녕하세요! 저는 영월 지역 하이디 권경민입니다! 저는 국어선생님이라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리 저는 화순에 살고 있고 간호사가 꿈인 권누리 하이디입니다!

서영 보령 지역의 김서영 하이디입니다. 인공지능 관련 분야에 흥미를 느끼고 진로를 찾는 중입니다.

우리 팀의 특징을 자랑해 주세요! 하이쌤과 하이디가 함께할 때 더욱 빛나는 장점이 있나요?

세진 우리 팀은 성실한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저희 하이디들 세 명 모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멘토링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었거든요.

경민 서로 존중을 잘하고, 예의 바른 분위기 속에서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비록 서로 지역이 달라 거리가 멀고, 시간도 서로 맞추기 어려워 모두 함께 한 시간은 적지만, 함께 있었을 때 그 분위기를 잊지 못합니다!

누리 금방금방 의견이 합쳐지는 게 장점이에요!

서영 문제를 풀며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점이 좋았어요. 자유롭고 부드러운 수업 방식이 장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만난 날을 떠올려볼까요? 분위기나 기분이 어땠나요?

경민 세진 하이쌤과 처음 만났을 때에는 조금은 어색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서로 꾸고 있는 꿈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되고, 급속도로 친해졌던 것 같아요!

누리 처음 해본 멘토링이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긴장을 많이 했어요. 서로가 어색했던 것 같아요.

서영 온라인 멘토링을 해 본 적이 없어 처음엔 긴장을 했지만 편안한 분위기에 금방 긴장이 풀렸던 기억이 납니다.

세진쌤과 하이디 3명은 모두 다른 과목으로 학습 멘토링을 꾸준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과목이었는데, 그 과목이 하이디의 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해요!

세진 저는 하이디에게 도움이 되는 멘토링을 진행하고 싶었어요. 경민 하이디는 국어교사가 꿈이라서 국어과목의 공부를 진행하였고, 누리 하이디는 수학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했고, 서영 하이디는 영어 과목에 자신감이 없다고 해서 세 과목 모두 멘토링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경민 제 꿈이 국어교사라서 국어 과목을 중심으로 매번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국어 모의고사는 항상



권누리 하이디



김서영 하이디

아쉬운 점수를 받아서 고민이었는데, 세진 하이쌤과 함께 멘토링을 하면서 실력이 느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누리 어려워하던 수학 과목을 멘토링 했습니다! 2학년 때는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살짝이나마 없애 보고 싶었어요!

서영 영어 과목을 배웠어요. 저는 영어가 평소 가장 자신 없는 과목이었고, 기초가 부족해 혼자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영어 능력이 필요로 하다 보니 부족한 실력을 키우고 싶습니다.

후배 하이쌤, 후배 하이디에게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세진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유익했기 때문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다양하게 참여해보는 것을 추천해요. 가장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Higher 커뮤니티 소모임을 추천하고 싶어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독서'라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하이쌤, 하이디, 알람나이를 만나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경민 이번에 처음 도전한 '드림 스피치'를 추천합니다! 저도 드림 스피치를 나가고, 준비하는 기간동안 많이 떨리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었어요. 하지만 막상 드림 스피치를 하고 나니, 뿌듯함과 다른 곳에서도 당차게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된 것 같아 매우 기억에 남네요!

서영 평소 대학교에 관해 궁금했던 점을 물어볼 수 있던 꿈키움 WEEK를 추천하고 싶어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 참여한 이후 나에게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나요?

세진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데,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을 통해 하이ON 영상팀, 꿈키움 WEEK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다양한 경험에 도전할 수 있었어요.

경민 저는 따로 모의고사를 통째로 혼자서 풀어본 적은 없었는데, 세진 하이쌤과 함께 했던 멘토링은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습관이 저에게 생긴 것 같아서 매우 뜻깊어요.

서영 하이쌤과 함께 영어 과목 위주 멘토링을 진행하며 영어 기초를 잡을 수 있었어요.

언젠가 다시 하이쌤, 하이디를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나요?

세진 마지막 수업 때 경민 하이디와는 꼭 국어교육과에 진학해 같은 하이쌤으로 만나자고 했고, 누리 하이디와는 같은 지역 출신인 만큼 화순에서 같이 만나자고 이야기했고, 서영 하이디와는 대학에 합격한 후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만나자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경민 나중에 국어교사라는 꿈을 이룬

채 만나서, 서로의 국어 시험 출제 방법(?)과 학생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어요!

누리 저는 멘토링 활동이 종료된 후에 우리가 만나지 않았던 공백의 시간 동안 생겼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서영 하이쌤과 다시 만난다면 멘토링 때의 일을 추억하며 그 이후에 서로 진로에 관해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활동을 마무리하며, 서로에게 응원하는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세진 그동안 매우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해 준 우리 하이디들 너무 고마워요! 이제 고2, 고3이

되어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해 준 열정이라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앞으로도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할 우리 하이디들을 응원할게요!

경민 10개월이라는 길다면 긴 시간 동안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만나다면 활짝 웃으며 다시 만나요! 다들 '하이'팅!

누리 10개월 동안 재밌었어요! 다음에 만날 수 있다면 좋겠어요! 파이팅!

서영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하이쌤 또한 이루고 싶었던 목표와 꿈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서로 []다! 빈칸을 채우고 싶은 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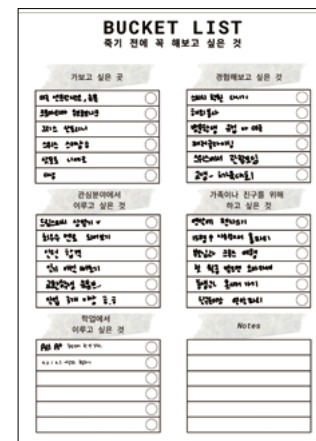
세진 우리는 서로의 [날개]이다. 저는 멘토링을 통해 하이디들이 부족한 과목을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고 꿈을 향해 다가가는 데 날개를 달아줄 수 있고, 저도 하이디들에게 배우면서 날개를 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민 우리는 서로에게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따뜻한 존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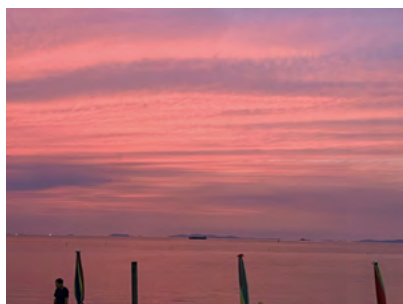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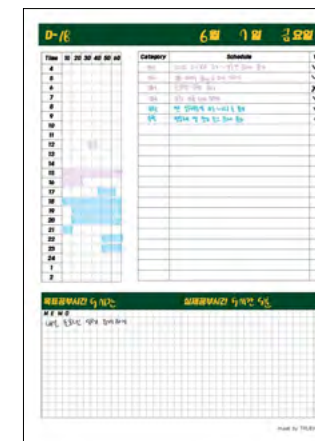
누리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서영 우리는 서로의 [가로등]이다. 어디서부터 해야 할 지 막막한 기분이었는데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 밝게 길을 밝혀주는 가로등 같은 존재였다고 생각합니다.

1



2



1 버킷리스트, 계획 세우기 멘토링
2 분홍빛 노을이 아름다운 보령

서로에 대한 배려와 성실함으로



고준호 하이쌤

취업 성공까지 성취!

힘든 상황 속에서도 빠지지 않고 학업에 열중하며 멘토링에 최선을 다한 이들은 취업 성공은 물론 성실함이라는 자산으로 무엇이건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과 끈끈한 유대감까지 얻었다.

하이쌤, 하이디 모두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준호 안녕하십니까, 영월 하이쌤 고준호입니다. 하이디들과의 시간을 보내며 대학교2학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너무 많아 꿈이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새로운 범위에 있는 지식들도 하나씩 얻어가며 성장하고 싶습니다.

송재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영월 하이디 이송재입니다. 저는 현재 취업해서 소방설비 설계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업과 학습을 이어가고 소방 기술을 취득해서 대한민국 소방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준우 영월의 상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이준우라고 합니다. 꿈은 야구선수이고 상동고등학교 야구부원입니다. 포지션은 투수이고, 매일매일 꿈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채은 안녕하세요, 영월 지역에 살고 있는 17살 엄채은입니다. 예전부터 국어선생님이라는 꿈을 가지며 현재까지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팀의 특징을 자랑해 주세요! 하이쌤과 하이디가 함께할 때 더욱 빛나는 장점이 있나요?

준호 저희 팀의 특징은 3명의 하이디들과 40주 동안 단 한주도 빼먹지 않고 성실하게, 꾸준히 멘토링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매주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고 학습을 하며 하이쌤과 하이디 간의 유대감을 만들고,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재 우리 팀, 정확히는 고준호 하이쌤은 학생과 1대 1로 원하는 시간에 맞춰 주셔서 편하고 부담 없이 수업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 조율이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하이쌤께서 최선을 다해 매주 꾸준히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준우 장점은 하이쌤이 시간도 없고 공부도 미숙한 운동부인 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시간도 잘 맞춰 주셔서 운동에 지장 없이 수업을 잘할 수 있었어요. 공부가 미숙한 저를 위해서 수준에도 잘 맞춰 주시면서 수업을

진행해 주신 점이 너무 좋았어요.

채은 부족한 것을 같이 채워 나가며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거 같습니다. 부족한 점을 채우고 좋은 점으로 성장하며, 서로에게 좋은 영향이 되어준다는 것 또한 장점이라 생각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을 떠올려볼까요? 분위기나 기분이 어땠나요?

준호 첫 멘토링 참여다 보니,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어떤 내용의 수업으로 아이들의 시간을 알차게 만들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처음부터 끝까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무색하게도 아이들이 많이 웃어주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유지하여 어려웠던 사이에서 존중하고 편안한 사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송재 처음 만난 날은 서로 좀 어색했지만, 지금은 준호 하이쌤에게

일상은 물론 미래에 관해 상담을 받을 정도로 의지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준우 벌써 하이쌤과 만난 지 거의 1년이 되었는데 기억이 새록새록 합니다. 처음 만난 날 어색했지만 하이쌤께서 운동부인 저를 위해서 시간과 수업 난이도 등 잘 맞춰 주시고, 친근한 형처럼 수업을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긴장도 풀리고 첫 수업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채은 멘토링 프로그램에 세 번째 참여하는데도 불구하고 첫 만남은 여전히 너무나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금방 어색함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학습 멘토링을 통해 특별히 성장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준호 학습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가장 신경 쓴 것은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가?'입니다. 오랫동안 아이들을 옆에서 지켜봐 온 것이



고준호 하이쌤과 하이디들의 멘토링 자료



아니기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능력이 향상되기를 원하는가를 항상 먼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참여하는 아이들과의 학습 멘토링을 통해 아이들의 학습뿐 아니라 저의 학습과, 자기 계발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멘토링이 끝날 때마다 항상 되뇌었던 것 같습니다.

송재 가장 큰 성장은 멘토링을 통해서 취업에 성공한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준호쌤과 함께한 면접 멘토링을 통해 발음과 말투와 같은 버릇들을 고쳐보고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등을 작성해 보며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그 덕분에 면접에 합격해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준우 영어 수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동안 영어 독해 능력이 늘고 문장을 읽는 것이 그 전보다 쉬워져서 실생활이나 수업 때 이로운 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한 층 더 성장한 나를



엄채은 하이다

보며 뿌듯했습니다.

채은 영어 듣기에 굉장히 약했는데 지속적으로 듣기평가를 연습하고 모르는 단어까지 정리하다 보니 문제 풀이에 훨씬 더 수월해짐을 느꼈어요!

그 과목을 중점적으로 멘토링하게 된 이유가 어떤 걸까요? 하이다가 원하는 과목이었는지, 그 과목이 하이다의 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해요!

준호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우선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과목에서도 어떤 영역의 학습이 필요한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영어 듣기, 단어, 독해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만들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준우 영어를 중점적으로 했어요. 야구선수가 꿈인데, 나중에 메이저리그도 가고 싶은 큰 꿈을 위해서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중점적으로 수업했습니다.



이준우 하이다

채은 영어 과목에 유독 약해서 시작한 거였어요. 꼭 필요하고 중요한 과목이기에 부족함을 보충하려고요.

10개월간 멘토링을 진행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준호 준우는 전지훈련 기간에 수업해야 하는 상황이라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는 환경에서 잘 참여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스스로 학습 환경을 마련해 멘토링에 참여해 줬어요, 채은이는 늦은 밤에도 멘토링을 진행하게 되어 피곤해하는 표정이었지만 티 내지 않고 열심히 참여해 준 것, 그리고 송재는 자소서와 모의 면접 연습 시간을 거친 이후 실제 면접에 합격해 연락을 준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송재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역시 면접 직전의 수업일 겁니다. 하이쌤과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고 처음 보다 더 나아졌다는 평가받았을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 모의 면접을 진행했을



이송재 하이다



준호쌤이 촬영한 영월의 설다리

땀 제가 느끼기에도 문제점이 많았지만, 하이쌤께서 저를 배려하는 단어를 선택해 고쳐나가자고 해주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 참여한 이후 나에게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나요?

준호 꾸준히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40주 동안 멘토링에 성실히 참여하며 스스로에게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통해 학교 강의 교재, 자격증 시험 접수, 생활비 등에 큰 보탬이 되어 적응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는 1학년 새내기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고요. 방학 중엔 자기 계발을 통해 성취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멘토링을 진행하며 아이들이 학습에 몰입할수록 뿌듯함을 느끼며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송재 일단 경제적 지원 덕분에 부담 없이 자격증 수험서와 접수비 등을

결제해 졸업 때 장려상을 받게 수 있었습니다. 또 첫 회사 면접에 합격해 이른 시기에 사회에 나갈 수 있게 됐고요.

준우 영어 증점수업을 하면서 단어와 문장 읽기가 많이 늘었고 학교 수업시간때도 배웠던 단어들이 나와서 수업에 아주 도움이 되었어요. 매주 꾸준히 하다 보니 끈기도 같이 키워졌습니다. 내년에도 또 하고 싶네요!

채은 학업 면에서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고 느껴져요. 취약했던 영어를 보완하며 성적을 향상시켰고 몰랐던 것까지 학습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한 거 같습니다

활동을 마무리하며, 서로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준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만 우리 인연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게. 그러니 언제든지 힘든 일 있거나, 무슨 일 있으면 편하게 연락해

줬으면 좋겠다! 항상 몸 건강 꼭 잘 챙기고 밥 사줄 테니까 꼭 연락해.

송재 그동안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처럼 자주 뵙지는 못하겠지만 언젠가 만나서 꼭 밥 한번 먹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우 그동안 다들 수고 많으셨고 2025년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채은 거의 1년이라는 시간동안 매주 꾸준히 멘토링 수업을 준비하시고 진행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2025년도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 빈칸을 채우고 싶은 말은?

준호 우리는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기억]이다.

송재 서로의 [동반자]다!

준우 우리는 서로 [발전하는 사이]다.

채은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하이쌤, 하이다]다.

비슷한 진로 꿈꾸는 우리,



장혜지 하이샘

가족보다 더 끈끈해졌어요!

의료와 간호라는 유사한 꿈을 꾸는 이들은 언젠가 비슷한 삶의 길 위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가족과는 또 다른 유대감으로 뭉친 이 팀은 드림스피치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며 시너지를 발했다.

장혜지 하이샘 + 유예은·김윤미·박성진 하이디

하이샘, 하이디 모두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혜지 안녕하세요. 국제 보건 전문가를 꿈꾸는 수다쟁이 강원 태백 지역 장혜지 하이샘입니다.

예은 저는 수술실 간호사를 꿈꾸는 외유내강 강원 영월 지역 유예은 하이디입니다.

성진 스포츠 재활 트레이너를 꿈꾸는 유연한 성격의 강원 삼척 지역 박성진 하이디입니다.

윤미 안녕하세요. 삼척 지역 김윤미 하이디입니다! 저의 꿈은 간호사입니다. 수간호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는데, 하이샘과의 멘토링을 통해 요즘 해외 간호사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중입니다.

우리 팀의 특징을 자랑해 주세요! 하이샘과 하이디가 함께할 때 더욱 빛나는 장점이 있나요?

혜지 우리 팀은 하이샘과 하이디의 관계를 넘어선, 가족 같은 끈끈함이 있어요! 저희가 함께하면 데시벨이

높아지면서 서로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 '나 자신'이 된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미 혜지 하이샘께서 편익한 과제를 주시는 덕분에 저희 하이디들은 열심히 실행에 옮겼어요. 박차고 힘든 것도 없었고, 그저 즐기고 배우는 마음으로 임했어요.

같은 진로를 꿈꾸는 하이샘, 하이디를 만나 멘토링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혜지 같은 진로를 꿈꾸는 하이샘, 하이디가 만나 멘토링을 하면, 전공 관련 정보를 더 활발히 공유할 수도 있고, 앞으로 삶의 궤적이 비슷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슷한 진로'가 관계를 더 오래 이어갈 수 있는 좋은 연결점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서로 꿈꾸는 분야가 조금씩 다른 것도 각자의 미래를 한 곳에만 고정하지 않고, 더 넓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윤미 전교생이 얼마 되지 않는 학교에 다니고 있기에 비슷하거나 같은 진로를 가진 학생을 찾기 어려워 진로에 대해 공감할 수도, 정보를 얻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같거나 비슷한 진로를 가진 다른 하이디들과 멘토링을 하니 더 폭넓게 진로를 볼 수 있었고, 여러 관점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정말 유익했어요.

하이샘과 하이디들이 '간호', '의료' 계열의 꿈을 끈 이유나 동기가 궁금해요!

혜지 저는 막연히 병원에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간호학과에



드림스피치에 참여한 혜지샘과 하이디들



유예은 하이디

진학해서 1학년 때는 방향도 많이 했어요. 이 길이 맞나 고민도 많았는데, 간호 공부도 재밌었고, 일하고 싶은 분야도 생겨 점차 꿈을 키워나갔어요.

예은 저는 부모님의 추천으로 간호학과를 가겠다고 생각했었는데, 헤지 하이샘과 2년 정도 멘토링을 하면서 간호라는 분야에 더 확신을 얻었어요!

윤미 저의 장점에 적합한 진로가 결국은 간호사더라고요. 새로운 환자를 맞이하여 치료를 하고, 또 내가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또 간호사 면허증이 있다면 해외로 나가 새로운 경험을 쌓으며 저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꿈이라 생각했기에 간호사를 꿈 꾸고 있습니다.

하이샘, 하이디와의 멘토링 중에 특별히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알려주세요!

예은 헤지 하이샘께서 국제 보건 분야를 꿈꾸시는 모습을 전해 듣고, 또 영어 회화 멘토링을 통해 영어 듣기, 말하기까지 익히면서 해외에서도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술실 간호사라는 꿈뿐만 아니라 간호학과에 진학해서도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해서 해외 봉사도 가보고, 해외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윤미 드림스피치를 준비하며

저 자신에 대해 더 알게 되어서 자신감이 생기고 제 진로에 확신이 섰어요. 드림스피치에는 제 꿈에 대한 방향, 목표, 이상향, 계획 등의 내용이 담겨있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 자신에게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한 결과를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게 되니 더 짜릿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덕분에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 참여한 이후 나에게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나요?

성진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덕분에 고3 한 해 동안 '물리 치료학과/스포츠 재활학과 진학'이라는 목표를 확실히 하고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헤지 하이샘이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셔서 해부학 공부도 알게 해보며 제 꿈에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대학 생활 로드맵 그리기, 수시 원서 알아보기 멘토링 등을 통해 대입은 물론 나아가 대학생활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었어요.

윤미 일주일에 한 번의 멘토링으로 인해 꿈에 대한 동기 부여를 상기시킬 수 있었고, 혼자 골머리 앓고 있던 것도 하이샘께 여쭙보며 더욱 이해가 잘될 수 있었어요. 또 장학금이 지원됐기에 여러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었고, 책도 많이 읽어 지혜와 교양을 쌓을 수 있었어요.

언젠가 다시 하이샘, 하이디를 만난다면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나요?

헤지 멘토링이 끝나도 같이 만나기로 했지만, 더 시간이 흘러 10년 뒤쯤을 상상해 보자면, 헤지 하이샘, 윤미 하이디, 성진 하이디, 예은 하이디 모두 병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 같이 만나서 꿈꿔온 대로 잘 살고 있는지, 요즘 힘든 점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네요. 그땐 멘토와 멘티의 관계보다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언니, 누나, 동생으로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윤미 각자 원하는 꿈과 목표에 도달해서 근황과 앞으로의 목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허황된 꿈일지라도 옆에서 해주는 응원이 얼마나 큰 힘인지 멘토링을 하며 깨달았기에 옆에서 묵묵히 응원하고 조언해 주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활동을 마무리하며, 서로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헤지 우리 모두 앞으로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일이 가득하고, 어떤 게 더 나은 선택일지 전혀 모르겠는 막막한 순간이 많겠지? 그럴 때 우리 각자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보여주면서 서로의 미래에 좋은 이정표가 되어 주자! 늘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이 최선이라는 것 잊지 말고, 힘들 때 자주 연락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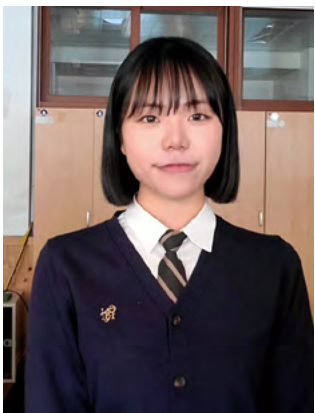
윤미 다들 열심히 활동을 해서 해외탐방이라는 최우수상도 받았으니, 우리 이 경험과 성취감을 바탕으로 꿈꾸는 곳에 꼭 도달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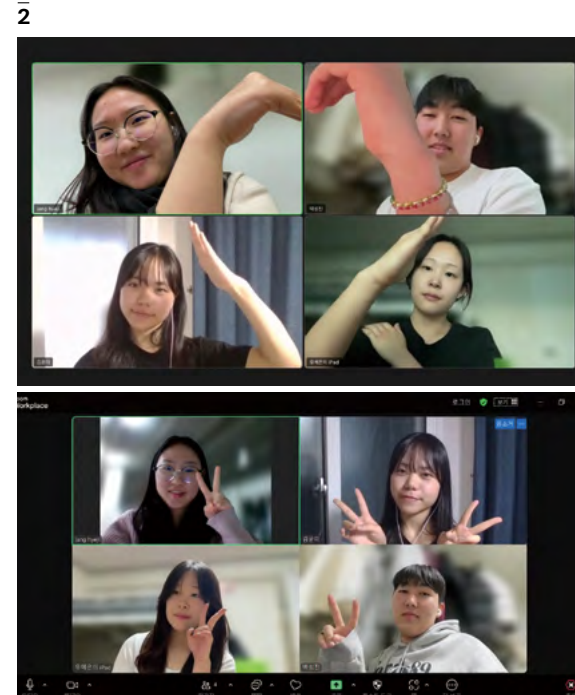
- 1 헤지샘이 하이디들에게 전한 수능응원 선물
- 2 온라인 멘토링 시간을 기념하며



박성진 하이디



김윤미 하이디



우리는 서로 []다 빈칸을 채우고 싶은 말은?

헤지 우리는 서로의 [남매]라고 하고 싶어요. 저와 하이디들 모두 나이 차이가 2~3살밖에 차이 나지 않기도 하고, 웬지 모르게 타지에 살고 있는 동생들, 언니, 누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같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더 돈독해지고, 친해진 것 같아서 남매라고 하고 싶어요.

윤미 우리는 서로의 [동기 부여]이다.

형제처럼, 친구처럼



유병주 하이쌤

서로 든든한 울타리가 됐어요

모두 삼척에 거주하는 유병주 하이쌤팀은 스스로는 동네 친구나 친형처럼, 서로의 마음속에 든든한 인연으로 자리 잡았다.

유병주 하이쌤 + 김준일·김할루·고혜인 하이디

하이쌤, 하이디 모두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병주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고 자동차 엔지니어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삼척 지역 유병주 하이쌤입니다.

혜인 저는 삼척에 사는 고혜인입니다. 이제 삼척중학교 3학년이 됩니다. 저는 크리에이터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루 저는 강원도 삼척에 살고 있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김할루 하이디입니다. 저의 꿈은 이 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장래희망은 대통령입니다.

준일 저는 강원도 삼척에 살고 있고 경찰관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김준일 하이디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어 경찰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멘토링에서 만난 유병주 하이쌤과 하이디들

없이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할루 같은 지역이다 보니 지역에 관한 얘기를 했을 때 서로의 공감대가 있는 게 신기하고, 오프라인 멘토링을 진행하기가 쉽습니다. 또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서 열리는 오프라인 행사들을 하이쌤과 다른 하이디와 같이 모여서 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준일 일단 오프라인 멘토링을 하다 보니 바로 대답을 하며 의사소통이 잘 되고, 더 집중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멘토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한 대면으로 만나다 보니 수업이 보다 재밌고 몰입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삼척이라는 곳이 여러분에게는 각자 의미 있는 곳일 것 같은데요. 삼척이라는 지역을 떠올리면 어떤 기분과 감정, 느낌이 드나요?

병주 삼척이라는 지역을 떠올리면 '휴식'의 느낌이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힘들면 바다가 보고 싶은 삼척 토박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제가 얼마나 고향에 의지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혜인 태어나 이곳에서만 쪽 살았기에, 여기는 내가 절대 버리면 안 되는

우리 팀의 특징을 자랑해 주세요! 하이쌤과 하이디가 함께할 때 더욱 빛나는 장점이 있나요?

병주 우리 팀은 친형제 같이 친하게 지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멘토링을 할 때나 다른 활동을 할 때도 거리낌 없이, 하이디들의 활발한 성격 덕분에 항상 시끌벅적한 팀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혜인 만났던 시간에 비해 서로가 너무 친하고 활발했고 원래 친구였던 것처럼 편했습니다. 특히나 하이쌤, 그리고 한살 위인 준일, 할루형도 친형 같아서 수업이 편했습니다.

할루 오프라인 멘토링도 하고 온라인 멘토링도 병행하며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 어색하지 않고 자유로운 멘토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믿을 수 있어서 무슨 일이든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준일 같은 삼척 지역 출신이다 보니 서로를 더 잘 알아가면서 멘토링을 진행하니 더 잘 맞았어요. 멘토링을 하면서 팀워크를 다졌던 것 같습니다.

병주쌤과 하이디 3명은 모두 삼척 출신이라고 알고 있어요! 혹시 같은 지역인 하이쌤 하이디가 만나 멘토링을 진행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병주 삼척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멘토링을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큰 이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초반에 공감대를 형성할 때 삼척의 얘기를 주로 했는데, 다들 공감하는 얘기를 할 수 있어 관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됐거든요.

혜인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늘어나며, 화면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직접 마주하니 친밀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음에 봤을 때도 어색함

곳이라 생각합니다. 삼척이라는 지역을 떠올렸을 때는 편안함이 강해서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할루 삼척에는 자연이 많아서 자유로우면서 아늑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갔다가 삼척에 돌아오면 집에 온 것 같이 편안해요. 삼척이 딱히 크지는 않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아는 사람을 마주치기가 쉬워 더욱 집 같은 느낌이 듭니다.

준일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라 추억과 좋은 기억이 많고, 아름다운 산과 바다가 아우러져 있어 삼척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고 모든 감정을 삼척에서만 느껴왔기 때문에 삼척을 떠올리면 쿨쿨한 감정이 듭니다.

오프라인 멘토링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때의 기분은 어땠는지 등 그날의 에피소드를 들려주세요!

병주 오프라인 모임 두 번째 멘토링은 독서 멘토링이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사는 하이디들과 시내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각자 원하는 책을 고르고, 카페에서 읽으며 느낀 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헤인 그 때 처음으로 만나서 날이었기에 긴장과 설렘이 공존했습니다. 그 때는 학습 멘토링이 아니라 우리 삼척 지역을 알아가는 활동 멘토링이었는데, 삼척 해수욕장에서 달리기 대결을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으로 체육활동을 했던 때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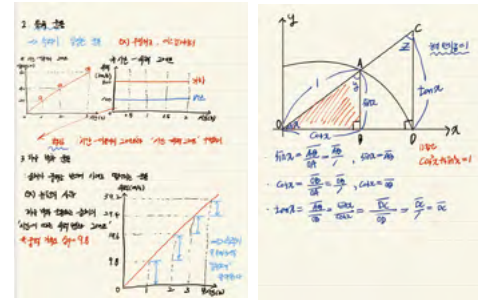
할루 처음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화상으로 수업하다가 첫 대면 만남이었기에 어색했지만, 같이 밥도 먹고 카페도 가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온라인 멘토링에서 느끼지 못한 서로의 특징도 알아가며 더 친해졌습니다. 두 번째 오프라인 멘토링에서는 독서 멘토링을 진행하였는데 같이 도서관에서 책도 고르고, 고른 책을 카페에서 읽으며 서로 대화를 나누어 학습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준일 만나서 오프라인 멘토링을 했을 때, 그 책을 읽고 느낀 점을 말했어요. 대면으로 만나다 보니 의사전달이 쉽고 몰입도가 높아져서 온라인 수업보다 재밌었습니다. 도서관에 갔을 때는 제가 좋아하는 야구책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독서 멘토링 덕분에 책을 읽을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 참여한 이후 나에게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나요?

병주 우선 멘토링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멘토가 멘티에게 정보 전달만 해주는 것이 아닌, 멘토도 그 과정에서 멘티들에게 크게 배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하이디들이 겪는 고민과 아이디어는 제 사고방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크게 확장해 주었습니다.

헤인 꿀팁이나 공부법 등을 알려주는 하이쌤과 함께라 공부하는 법을 더 잘 알 수 있었어요. 과목에 필요한 지식들을 조금씩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공부를 일정한 시간



1

동안 꾸준히 하다 보니 공부에 대한 거부감도 조금씩 사라졌고요.

할루 저는 원래 공부를 잘 하지 않는데, 멘토링을 하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 참여했습니다.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았고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는데, 수학과 영어 멘토링을 하며 공부에 대해 친밀감이 생겼어요. 또 멘토링을 꾸준히 하면서 전에는 없던 끈기 또한 길렀습니다.

준일 하이쌤이 멘토링을 해주시면서 자기 주도 학습의 중요성을 알려주셨고, 덕분에 멘토링을 통해서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멘토링을 하지 않을 때도 혼자 공부를 하며 학습 습관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활동을 마무리하며, 서로에게 응원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병주 너희는 너희의 생각보다 더 많은 끼와 재능을 가지고 있어! 힘들더라도 잠시 쉬어가면 되니까 포기만 하지 말고 하고 싶은 것들 다 이뤄보자! 쌤도 최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할게!

헤인 일단 한 번 부딪혀봐. 실패도 해봐야 그것도 하나의 좋은 경험이 될 테니까.

할루 비록 이렇게 마지막 멘토링을 하며 헤어지니 살짝 속상하지만 그래도 서로 연락을 하며 지내고 싶습니다. 모두 자신이 원하는 길에서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준일 하이디들의 앞날을 응원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꼭 성공해서 언젠가 다시 만나는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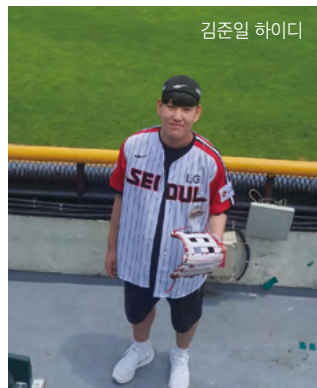
우리는 서로 []다! 빈칸을 채우고 싶은 말은?

병주 우리는 서로의 [슈퍼 이퀄링]이다. '마그네틱'의 가사처럼 서로에게 이끌리기 때문에.

헤인 우리는 서로의 [심장]이다. 우리는 모두 없으면 안 되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할루 우리는 서로의 [달력의 별표]다. 이미 지나갔지만, 그 달력에 표시된 별표를 보며 우리가 같이 했던 추억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준일 우리는 [별]이다. 각자의 위치에서 빛나고 있으니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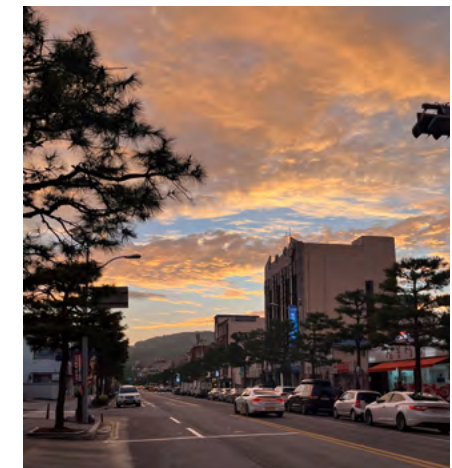
김준일 하이디



김할루 하이디



고헤인 하이디



2

1 수학 멘토링 진행 자료
2 삼척의 예쁜 노을

경험 나누는, 끈끈한 여행 메이트가 됐어요



서로 여행까지 다녀올 정도로 끈끈하고 막역한 사이가 된 이 팀은 그야말로 라포 형성의 본보기라 할 수 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만, 멘토링을 통해 더욱 깊은 사이가 됐다.

정민우 하이쌤 + 김보성·박현우·이도현 하이디

하이쌤, 하이디 모두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민우 안녕하세요. 강원도 태백에서 성장한 하이쌤 정민우입니다. 여행에서 본 건물의 아름다움에 매력을 느껴 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선호로 시작한 건축은 공부할수록 저와 잘 맞고, 잘할 수 있는 일이라 느껴집니다. 공간과 환경을 통한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해, 저의 건축에 녹여내는 방법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보성 태백 김보성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라 꿈을 열른 생각해서 대학을 갈 생각입니다.

현우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디 박현우라고 합니다. 멘토링을 하면서 꿈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멘토링하는 내내 굉장히 즐거웠고

또한 선생님과의 추억도 많이 쌓았습니다. 멘토링은 저의 꿈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도현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꿈을 정하지 않았고,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팀의 특징을 자랑해 주세요! 하이쌤과 하이디가 함께할 때 더욱 빛나는 장점이 있나요?

민우 따로 보면 얇은 구석 하나 없지만, 뭉쳐두면 기묘하게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추구하는 방향과 공부의 내용이 다름에도 누군가의 부족한 역량을

다른 사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 어느 팀보다도 시너지가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성 우리 팀의 특징은 서로 친구처럼 스스럼 없이 친하다는 점? 가면 갈수록 서로 친해지면서 서로 편하게 멘토링하고 노는 게 장점입니다.

현우 같이 수업할 때 서로 말이 잘 통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기본도 매우 좋았으며, 서로의 취미와 고민도 이야기했습니다

도현 같이 멘토링하면서 친해질 수 있었고,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민우쌤과 3명의 하이디는 어떤 주제로 멘토링을 진행했나요?

민우 하이디들이 더 많은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전달과 계획하는 법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초반 멘토링을 진행하며 생각보다 더 하이디들의 경험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았다고 생각한 제 학창시절을 돌아보니, 주변에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 어른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이어서 맡을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주간의 소식을 나누며 대화했고, 각자의 일정과 시험 등 계획이 필요한 상황에 맞춰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보성 저희는 주로 진로 멘토링을 진행했어요. 대학교를 간다면 어느 대학교와 학과를 갈 수 있을지 찾아보고 의논했어요. 취업한다면 어느 회사로 갈지 찾아보고 이후에는 일상 얘기를 하면서 멘토링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 만난 하이쌤과 하이디들이 친해지기까지 어떤 과정과 노력이 있었나요?

민우 하이디들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주었습니다. 학업적인 부분 외에 게임, 음악, 미술 등 취미에 맞추어 정보를 공유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확실히 관심 분야와 연계한 방법이 더 흥미와 참여를 이끌기 좋았습니다. 처음엔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은 친구가 있어 고심하고 걱정했지만, 시간을 들여 기다려주었습니다. 다행히



정민우 하이쌤



서울로 여행을 한 하이섬과 하이디들

그 이후로는 마음을 열어주어 같이 대화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보성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학교 친구처럼, 동네 친구처럼 친해진 것 같아요.

현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멘토링을 매주 진행하면서 어색함을 극복했어요.

도현 고민이 생길 때마다 민우쌤에게

질문을 했어요. 거의 진로 관련된 질문이었고, 얘기를 나누면서 점점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워진 하이섬과 하이디가 오프라인으로 여행을 다녀왔다고 들었어요. 함께한 여행의 후기를 들려주세요!

민우 경험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만큼, 처음부터 멘토링의 마지막은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듣는 것보다 직접 보고 돌아다녀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이디들의 서울 경험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 그 필요성을 더욱 크게 느꼈습니다. 여행은 오랜 시간을 들여 계획하고, 수정하고 검토했습니다. 그런데도 여행 당일엔 상당 부분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언제나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런 경험이 처음인 하이디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여행의 큰 줄기인 '경험'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정에 없는 상황에도 잘 따라와 주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여행도 무사히 다녀올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보성 민우쌤이 서울 구경 시켜준다고 올라오라고 해서 저희가 일정을 짜고 정해서 같습니다. 1박 2일로 놀면서 같이 옷을 구경하고, 룰파크도 가보고, T1 사육도 가보고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서울이 아니면 못 가볼 장소를 여기저기 가보니까 엄청 좋았어요! 민우쌤한테 엄청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현우 민우쌤과 함께 경희대학교에 가서 오케스트라 공연을 관람하고, 굿즈 사고, 노래도 듣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도현 민우쌤과 보성 하이디랑 여행하면서 '서울에는 이런 곳이 있구나' 알게 되었어요. 맨날 익숙한 동네에서만 지내다 보니 서울 여행이 새로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여행 다녀와서 재밌었고, 다시 같이 가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 참여한 이후 나에게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나요?

민우 누군가에게 제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경험은 많았지만 이번처럼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가며 발전시켜 본 적은 없었습니다. 매 순간 스스로에 대해 점검하고 나아지고자 애썼습니다. 각자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멘토링에 쏟는 만큼, 저는 하이디들에게 배울만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멘토링 때마다 이 다짐을 반복적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것이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성 장학금을 받아 생활하며 저의 진로에 대해 고민해 보고, 대학교를 알아가는 변화가 있었어요.

현우 소극적인 성격이 조금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언젠가 다시 하이섬, 하이디를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나요?

민우 각자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서로가 겪어온 경험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무엇이 어려웠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무엇을 얻었는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싶습니다.

보성 다른 여행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현우 잡담을 나누거나 전에 멘토링했던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활동을 마무리하며, 서로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민우 더 많은 것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럼에도 나를 잘 믿고

따라와 줘서 고맙다. 처음부터 혼자서 계획해 보고,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새 저 앞에 나아가 있을 거야. 우리의 관계는 이번으로 끝나지 않으니 언제든지 연락해.

보성 민우쌤이 어찌면 대학 생활로 바빠서 하이섬 활동을 못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다시 함께하지 못할 수 있다니 참 아쉽고 씁쓸해요. 그래도 대학 생활 파이팅!

현우 민우쌤 늘 행복하세요!

도현 저는 민우쌤이 하시는 무엇이든지 다 잘 되면 좋겠어요.

우리는 서로 []다! 빈칸을 채우고 싶은 말은?

민우 우리는 서로 [모였을 때 완성되는 퍼즐]이다.

보성 우리는 서로 [끊을 수 없는 인연]이다!

현우 우리는 서로 [친구]다.

도현 우리는 서로 [더 알아가고 싶은 사이]다.



하이섬과 함께 오케스트라를 감상한 현우 하이디

High Program

우리가 보낸 알찬 10개월의 기록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수요자 관점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다양한 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장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요소를 지원합니다.

지난 10개월을 빼곡히 채운,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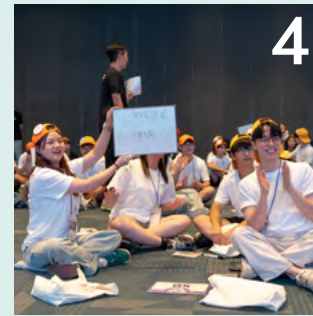
사전교육
2024. 5. 24.(금) ~ 6. 30.(일)



발대식
2024. 6. 16.(일) 13:00 ~ 15:30,
서울 코엑스 159 스튜디오



사회인 멘토링
2024. 7 ~ 2025. 2
총 20회 진행



부스팅 캠프
2024. 8. 8.(목) ~ 8. 9.(금)
강원랜드 하이원 그랜드호텔,
그랜드볼룸



꿈키움 WEEK
2024. 12. 11.(수) ~ 12. 20.(금) 중
8일간 진행



드림스피치
2025. 1. 4.(토) 13:00 ~ 16:00,
서울 신촌 에피소드 369



수료식
2025. 2. 18.(화) 12:00 ~ 16:30,
강원랜드 하이원 그랜드호텔,
그랜드볼룸



해외탐방
2025. 3. 21.(금) ~ 3. 28.(금),
미서부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로스앤젤레스 일대



1 하이디, 하이쌤으로의 마인드 셋

하이쌤과 하이디가 10개월간 활동을 더 알차게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전교육을 준비했어요. 하이쌤과 하이디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의 장학생이 되기 위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올해 처음 멘토가 된 하이쌤은 멘토로서 지니고 있어야 할 성인지 감수성을 배우고, 온라인 멘토링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툴을 알아가며 멘토로서 성장했어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활동하는 하이쌤은 멘토링에 필요한 청소년 상담 기법을 배우며 하이디의 정서에 도움을 주는 하이쌤이 되고자 마음먹었다고 해요.

하이디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과 장학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사전교육을 통해 하이쌤과 하이디는 자신의 역할을 배우고 앞으로의 멘토링 활동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후기

하이쌤

- 멘토링을 시작하기에 앞서 온라인상에서 최대한 하이디와 많은 교류를 나누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존재하기에 막막한 부분이 많았는데, 여러 교육 툴의 종류와 사용 방법에 대해 다루는 영상을 시청한 후 좀 더 창의적이고 즐거운 수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 같아 기대된다.

-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툴들과 각 툴마다 어떤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를 설명해 줘서 매우 실용적인 강의였습니다.

- 하이디들과의 대화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알려주어서 유익했습니다. 이걸 하이디들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대화할 때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었어요.

하이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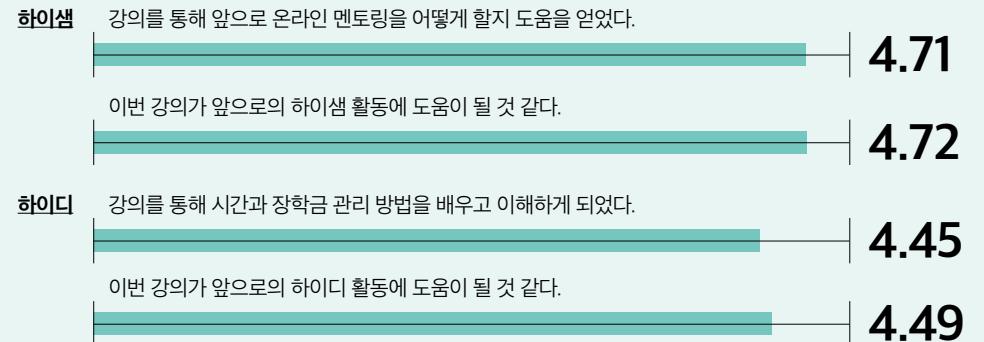
- 2년 정도 하이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과거 활동에 대한 보완점을 찾고 효율적으로 장학금을 사용할 계획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 용돈 기입장을 꾸준히 쓰는 게 쉽지 않은데 영상을 통한 교육을 받고 나서 세분화시키기보단 목록별로 묶어서 기록하면 더 편리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 시간이란 개념이 사실 잘 와닿는 개념은 아닌데 여러 예시와 객관적인 자료, 적절한 유머와 말투를 통해 시간이란 무엇인지, 왜 관리해야 하는지 제대로 전달해 줘 확실히 인식할 수 있게 되어 좋았다.



만족도





스케치 영상 보러 가기



1

2

하이디, 하이샘이 되다

발대식을 통해 하이샘 하이디는 2024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의 장학생이 되었어요. 장학증서를 받고 활동 포부를 발표하는 시간에서 장학생으로서의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지 않았나요?

1부 발대식 시간을 마치고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을 더욱 잘 이해하고 활동 시작을 앞둔 여러분들이 활동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장학생 활동 안내 시간도 함께 준비했어요. 올해는 특별히 장학생 활동 안내를 마친 후 교육이나 특강을 진행하지 않고,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수료생인 알루미나, 장기&신규 하이샘과의 토크콘서트를 진행했어요. 함께 활동할 장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과 기대감을 얻고 선배 장학생들의 경험을 통해 활동 꿀팁과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2

후기

- 나눔의 선순환이라는 슬로건처럼, 제가 나눠주는 것들이 담당 하이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 아이들이 자라 또 다른 더 멋진 나눔을 실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 알루미나, 오프라인에 참석한 하이샘들과의 토크콘서트에서 강원랜드 멘토링의 활동에서 가장 좋았던 점이 무엇인지, 본인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마음가짐인지 생생하게 알려주셔서 도움이 되었고 저도 빨리 그런 활동에 참여해 다른 하이샘과 하이디들과 오프라인으로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활동 포부

- 하이디들만 바라보며 “그냥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발대식을 직접 참가하며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이 바뀌었다. 하이디들이 나와 함께한 10개월이 최고의 10개월이 되도록 공부뿐 아니라 인생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싶다.
- 생각보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하이샘, 하이디들이 많이 있고 이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더 좋았다. 언젠가 의지가 꺾일 것 같을 때 오늘을 기억하면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 이번 활동을 통해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의 장학생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의지 생겼습니다! 누구에게나 쉽게 주어지지만은 않은 활동인 만큼 더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의 활동들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 1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파이팅
- 2 활동 소감발표를 하는 영월 최우영 하이샘
- 3 하이샘, 하이디와 함께 단체사진
- 4 장학증서를 받은 하이디, 하이샘



3



4

만족도

- 발대식을 통해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생으로서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 앞으로의 장학생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
- 2024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생 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를 받을 수 있었다.



3 하이쌤, 든든한 지원군을 만나다

하이디에게 하이쌤들이 있듯이, 하이쌤들에게는 든든한 사회인 멘토단이 있어요. 하이쌤들의 전공이 다양한 만큼, 제각기 다른 꿈을 가지고 있기에 그만큼 다양한 분야의 멘토님들과 멘토링을 준비했어요! 멘토님과 총 20회의 사회인 멘토링이 진행되었는데, 교사, IT, 금융 등 커리어의 멘토링뿐만 아니라 취미, 인생 조언 등 라이프 멘토링도 열렸어요. 미래를 모르겠다는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사회인 멘토와 동료 하이쌤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세요. '나만 걱정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모두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진로에 대한 고민은 조금씩 여러분을 성장하게 해준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모든 하이쌤이 사회인 멘토링에 참여하며 더 많은 걸 배우고 경험하는 순간들을 늘 응원합니다!



세부 프로그램별 후기

하이쌤을 위한 커리어 멘토링



Hi, 쌤 : 현직교사가 된 하이쌤
장유리 멘토(2021 - 2022 하이쌤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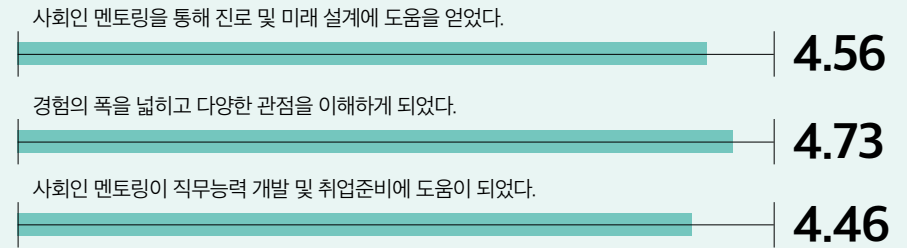
선배 하이쌤이자 선배 교사 멘토님의 솔직한 경험이 담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의 온라인 멘토링 꿀팁부터 임용 공부 경험과 꿀팁까지 현재 저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비슷한 진로를 꿈꾸는 하이쌤들과 멘토링을 들으면서 의지가 됐습니다.



소셜벤처 생태계, 넓고 알게 알아보기
홍주은 멘토

성수 헤이그라운드를 같이 둘러본 후, 멘토님께 커리어 선택과 직장 생활에 관해 이야기를 들었어요. 멘토님께서 참석한 멘티들의 진로 설계 등을 먼저 물어보신 다음에 직장생활 전반과 커리어 선택과 관련한 최대한 포괄적인 주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려 하셔서 좋았습니다!

만족도



2



3



4



하이쌤을 위한 라이프 멘토링



우리의 영감을 연결하는 책과 책모임
박수연 멘토

책을 잘 읽는 방법, 하이디와 독서 멘토링을 잘 진행하는 방법이 궁금해서 참여하게 됐는데, 실제 멘토링 시간에 멘토님의 방향하던 순간과 이겨내는 순간, 지금의 순간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멘토님의 단단한 내면과 도전, 용기까지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실패해도 손해볼 게 없는 인생
이희원 멘토

아직 대학이나 사회에서 많은 경험을 해보지 않았고, 실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많았는데, 멘토님의 경험을 통해서 실패에 대해 미리 두려워하기보다는 도전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결과에도, 제 자신에게도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 1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홍주은 멘토님의 멘토링
- 2 독서 취미 생활을 주제로 진행된 박수연 멘토님의 멘토링
- 3 다양한 경험에 대한 주제로 진행된 이희원 멘토님의 멘토링
- 4 하이쌤에서 현직 교사가 된 장유리 멘토님과 멘토링



스케치 영상 보러 가기



1

4 우리 같이 BOOST-UP!

부스팅 캠프는 하이쌤과 하이디가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1박 2일 간의 특별한 프로그램이에요. 2024년 5월 말부터 활동을 시작한 하이쌤과 하이디는 실제로 만나 서로 친밀감을 쌓고, 동료들과의 교류를 통해 많은 동기부여를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째 날에는 장학생 역량강화교육이 진행되었어요. 회복탄력성에 대한 주제로 하이쌤과 하이디는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 온라인 멘토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 강화교육도 이어졌어요.

저녁에는 하이도전! 골든벨이 열렸어요. 팀별 퀴즈와 깜짝 장기자랑 타임이 포함된 이 시간은 하이쌤과 하이디가 함께 팀을 이루어 활동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둘째 날에는 강원랜드 임직원 멘토님들과 함께 가치관과 진로 설계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맛있는 점심 후에는 하이원리조트의 달팽이숲길 트레킹을 즐기고, 케이블카를 타고 하이원 탑에 올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멋진 추억을 남겼습니다.

1일차

[세션1] 장학생 역량 강화교육
회복탄력성 향상을 주제로 한 하이쌤/하이디 통합교육과 공감/감정을 주제로 한 주제별 멘토링 동기 강화 교육

[세션2] 팀빌딩 및 네트워킹
강원랜드, 시사 등 다양한 주제를 반영한 퀴즈대회를 통해 팀워크 향상 및 네트워킹

2일차

[세션3] 임직원 멘토링 컨퍼런스
강원랜드 임직원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진로계획을 확립하고 소속감 강화

[세션4] 강원랜드 탐방 프로그램
달팽이숲길 트레킹 및 케이블카 탑승을 통한 강원랜드 공간 경험

후기

하이쌤

● 부스팅 캠프에 참여한 1박 2일 동안 여러 스태프분들의 응원과 격려, 힘이 나는 진행 덕분에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동료 하이쌤들과 하이디들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하이디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뜻깊고, 하이쌤으로서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스팅 캠프에서 얻은 좋은 기운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한 하이쌤이 되어 더 멋진 수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디

● '생각이 많다'는 나의 단점을 산책을 통해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평소 생각이 많지만 좋은 날씨에 좋은 산책로를 걷다 보니 점차 생각이 사라지고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후 케이블카를 타며 강원랜드의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트레킹을 하고, 케이블카를 타면서 이렇게 예쁜 날씨를 완전히 만끽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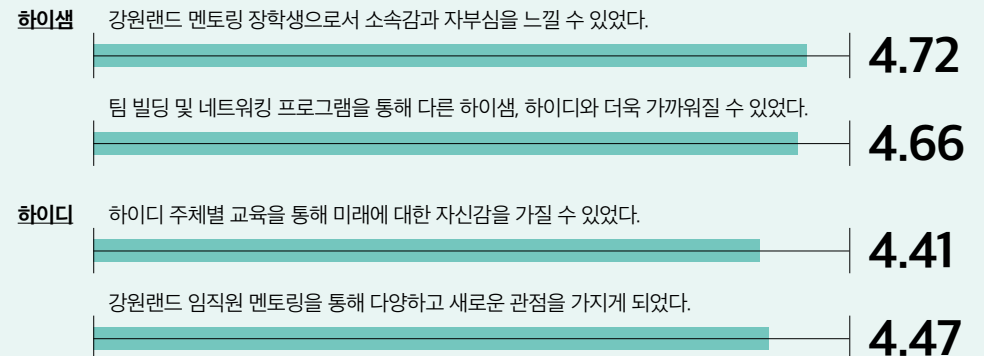
3



4

- 1 곤돌라 탑승 후 정장에서 찰칵
- 2 첫째 날 단체사진
- 3 하이도전! 골든벨에 참여하는 하이쌤 하이디
- 4 임직원 멘토링 컨퍼런스 2부 토코콘서트 현장

만족도





스케치 영상 보러 가기



1

5 하이다, 꿈을 향해 한 발짝 내딛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직업으로 삼아 즐겁게 직업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이샘이 응원할게요’.

폐광지역 청소년들에게는 든든한 존재가 있습니다. 이번 꿈키움 WEEK는 폐광지역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지역 선배들, 전문 강사들이 청소년들의 꿈과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약 8일간 진행되었어요.

올해는 특별히 WEEK 형태로 진행되어 경제 금융, 국어국문, 생명과학, 광고홍보 등 다양한 학과가 소개되는 학과 부스와 전문가 특강 등 총 15개의 진로 부스를 탐색할 수 있었는데요. 청소년 친구들이 더 즐겁게 이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스탬프 이벤트도 진행했어요.

이 시간을 통해 꿈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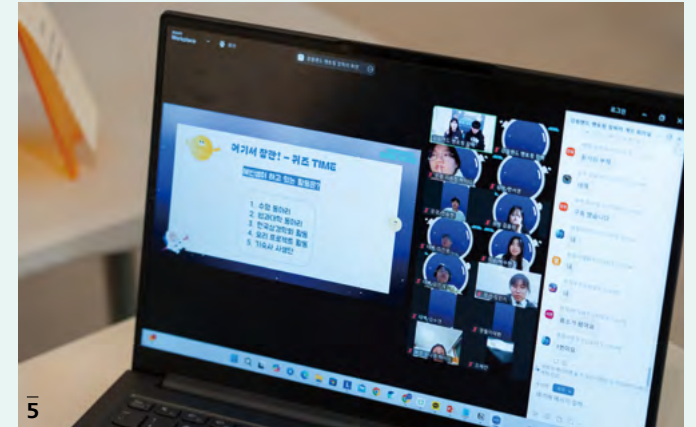
3

후기

- 오늘 수업해 주신 선생님이 친근하시고 재밌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좋았고 무엇보다 마지막에 선생님께 면접이든 어떤 것이든 다 물어보라고 하실 때 정말 든든했습니다.
- 고3을 앞둔 학생의 입장에 딱 알맞은 정보와 중요한 점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서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뜻깊고 다른 고3을 앞둔 학생들에게 추천하고픈 프로그램이었습니다!
- 대학에 관한 궁금한 점들이 많았는데 재밌는 이야기로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되었고 내가 모르는 대학 정보까지 알게 돼 유익한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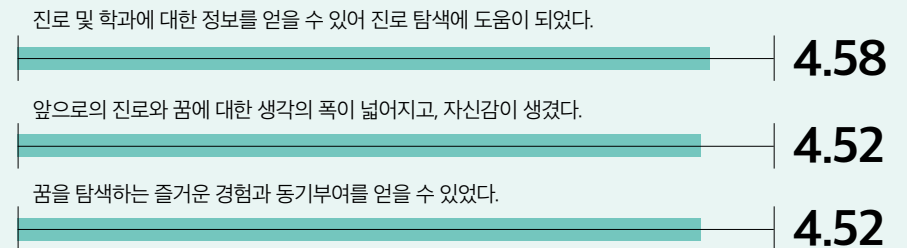
4



5

- 1 이색직업 전문가 특강 진행
- 2 초등부스 꿈키움 서포터즈 김윤희, 임윤진 하이샘
- 3 꿈키움 WEEK 진행 모습
- 4 SNS를 통해 꿈키움 WEEK 소식을 공유했어요
- 5 경제금융/경영부스에 온라인으로 참여한 하이다들의 모습

만족도 😊





6

더 큰 시작을 위한 우리의 뜨거운 엔딩

하이디와 하이샘에게 10개월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나요?

이번 수료식을 통해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안에서 활동을 회고하며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꾸준히 활동한 스스로에게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을 느끼길 바랐어요. 삼척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밴드 블라썸의 축하 무대를 통해 즐거움을 더하고 알럼나이, 학교 선생님들 소개하며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의 든든한 커뮤니티까지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활동이 끝나도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커뮤니티 구성원으로 계속해서 응원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후기

- 10개월의 시간이 벌써 지나갔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하나의 큰 활동이 끝나면 시원한 마음이 있는데, 강멘장은 아쉬운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가장 섭섭한 것은 고3 하이디와의 이별인데, 시간이 더 있다면 더 잘해줄 수 있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디 - 하이샘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유대감을 만드는 것이 강멘장 프로그램의 의의였구나 싶어 깨닫는 바도 많은 것 같습니다. 2024 멘토링을 마무리하면서 대면으로 하이디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 이번 수료식에서 처음으로 하이디와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네트워킹활동을 통해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즐거운 활동이 있어서 좋았고, 전반적으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생으로서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 약 19324시간(?)동안 멘토링을 진행했다는 걸 보고서, 이렇게 어리고 젊은 청춘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하는 게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어린 친구들에게 우연도 운명도 손수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특히 하이디들이 하이샘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모습도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수료식 때 봤던 공연, 네트워킹도 즐거웠고 좋은 인연을 또 알아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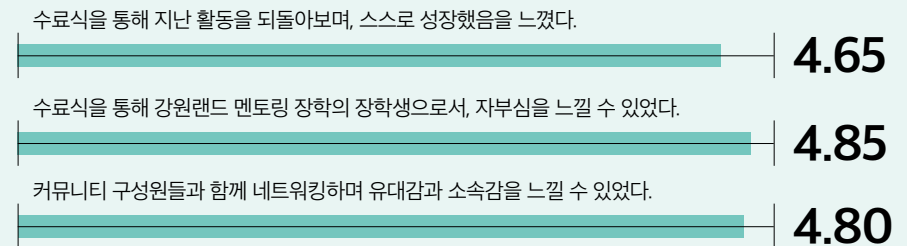


스케치 영상 보러 가기



- 1 수료를 축하하며 단체사진
- 2 포토존에서 동료 하이샘과 함께
- 3 활동 최우수자 표창장을 수여하는 이세진, 유병주 하이샘
- 4 키워드 카드를 활용해 이야기를 나누는 홍다운 하이샘
- 5 수료를 축하하며 준비한 기념품
- 6 포토존에서 최태현 하이샘

만족도 😊



7 로컬에서 함께 꾸는 우리의 꿈이 글로벌로

해외 현지에서 경험하는 사회인 멘토링, 대학탐방 멘토링, 문화탐방, 네트워킹의 시간!
 로컬을 넘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해외탐방을 통해 더 넓은 시야를 갖고 꿈을 찾아 나가길 바랍니다.
 더 넓은 세상을 마주한 우리는 나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외 현지에 계시는 멘토님들과의 사회인 멘토링,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문화 체험과 네트워킹을 통해 나를 확인하고 꿈을 더욱 키워 나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올해는 특별히 팀 프로젝트 공모전, 드림스피치에서 최우수팀으로 선정된 하이섬과 하이디도 함께 해외탐방을 가게 되었는데요. 해외탐방이라는 특별한 경험이 드림스피치에서 소개한 꿈에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2023 해외탐방 후기

- 다방면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요세미티에서 자연의 경이로움을 한껏 느끼며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중요한 유산은 문화뿐만 아니라 자연 또한 이에 포함됨을 느꼈다. 자연·초월과의 관계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행복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스탠퍼드 박사님과 지나 매니저님, 캡틴을 포함한 7명의 멘토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다. 바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였다. 전혀 다른 삶을 겪어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행복이라는 타이틀을 말하는 것을 보고, 과연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 샌프란시스코 도시의 주제인 ‘자유와 사랑’에 대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자유와 사랑’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지향합니다. 한국에서는 느끼기 힘들었던 각박하고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문화를 체험하니 제가 알고 있는 세계가 넓어졌습니다. 우선 ‘자유’의 측면에서 샌프란시스코를 돌아보면 자연과 문화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갔을 때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며 자연의 자유를 추구하고 있었고, 기업을 방문했을 때는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각자의 목소리가 중요시되는 자유로운 문화, 경제적 정치적 인종적 차별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었던 샌프란시스코의 사람들의 노력 등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랑’을 샌프란시스코 사람들에게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자체를 사랑하고 인생을 즐기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유롭게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까지 제가 추구하던 인생의 주제는 ‘사랑’이었는데, 샌프란시스코에 다녀온 후, 자유가 더해져 ‘자유와 사랑’이 되었습니다. 경험하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세계 일류 IT 기업 속 사회인 멘토링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자와 IT를 전공하는 학부생 입장에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쉽게 접할 수 없는 기회였기에 주어진 기회를 알차게 보내기 위해 스스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해외 탐방을 통해 전공 학습에 대한 보다 깊은 열정이 생겨, 좋은 성적을 성취해 일류기업 취직! 도전해보겠습니다.



1



2



3



스케치 영상 보러 가기

- 1 실리콘밸리에서 멘토링을 듣는 하이섬들
- 2 요세미티에서 다함께 점프!
- 3 드림스피치에 참여한 하이섬 하이디들
- 4 드림스피치에 참여한 배예슬, 황예린 하이디

- 한 달 남짓 다 함께 준비한 드림스피치를 위해 오프라인으로 하이디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꿈을 당당히 밝히고 그동안의 멘토링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꿈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 팀들의 활동을 들으며 많이 감탄하고 배울 점이 많다는 걸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사무국에서 준비해 주신 네트워킹 시간으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공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롤링 페이퍼를 작성하여 말로는 하지 못했던 마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늘 느끼지만 하이디들이 정말 정말 멋있었습니다.

드림스피치 참여자 후기

- 팀 프로젝트 공모전 드림스피치를 준비하면서 하이디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이디들이 꿈을 가지게 된 계기, 관심 있는 분야,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나 꿈을 위한 노력 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하이디와 함께 드림스피치를 위한 자료들과, 지나간 시간을 함께 두고 이야기해 보며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되짚어 보며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좋았습니다. 또 어떤 꿈을 가졌는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그 꿈을 바라보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4

8 우리가 들려주는 우리 이야기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홍보대사 하이ON 2기 멤버들은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서 더욱 성장하고 싶은 10명의 하이쌤들이 만나 홍보 콘텐츠, 하이쌤&하이디를 위한 이벤트와 네트워킹을 기획하는 활동을 했어요. 올해는 특별히 하이디, 하이쌤들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하이쌤, 하이디를 위한 콘텐츠,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이쌤, 하이디들의 이야기를 콘텐츠에 담으며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의 특별함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멘토링데이에서는 하이쌤, 하이디들이 서로 알아가며 커뮤니티를 단단하게 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았답니다. 하이쌤, 하이디가 즐거워하며 만족했다는 후기를 남겨줬을 때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활동 기간

2024년 7월~2025년 3월까지

활동 내용

블로그 | WHO? 하이쌤 인터뷰

정선, 태백, 영월, 삼척, 문경, 보령, 화순 하이쌤의 인터뷰 콘텐츠, 약 17명의 하이쌤들의 이야기들을 콘텐츠로 발행했습니다.



카드뉴스 | 하이ON이 하이쌤 대신 전해드립니다!

매달 멘토링과 어울리는 주제를 정해 하이쌤들이 하이디 또는 동료 하이쌤들에게 전하는 카드뉴스 콘텐츠, 52명의 하이쌤들의 이야기를 콘텐츠로 제작했습니다.



영상 | 하이쌤 TALK ON

하이디, 하이쌤들이 궁금하고 공감할 만한 영상 주제를 골라 브이로그, 스튜디오 토크 영상 등을 만들었어요! 강,멘,장의 특색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을 제작했어요.



이벤트 및 네트워킹 기획

하이쌤, 하이디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더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콘텐츠 또는 활동은?

- 스쿨어택입니다. '홍보대사'로서의 정체성이 가장 잘 드러난 활동이자, 팀원과 호흡을 맞추어 진행한 오프라인 행사라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제 첫 삼척 방문이 하이ON과 함께한 스쿨어택이라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 영월 멘토링 데이입니다. 기획한 행사를 진행하며 많이 떨리기도 했지만, 준비한 행사에 대한 하이쌤들의 반응을 보며 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하이쌤들이 따뜻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기획팀에게 칭찬을 해주셔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행사들도 열심히 기획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후기

- 하이ON 활동은 활동 하이쌤으로 멘토링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촉진제와 같았습니다!
-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생으로 10개월 간 생활하면서, 왜 이걸 이제까지 몰랐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네요. 지역 후배에게라도 이런 좋은 활동이 있다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어 하이ON에 지원했습니다. 촬영부터 오프라인 이벤트, 블로그 콘텐츠까지! 정말 많은 활동을 경험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었어요. 타인을 위한 열정이 결국에는 다양한 하이ON 활동을 통해 저의 성장으로 이어진 것 같아 기뻐요.

Higher Community

우리가 만든 연결고리

하이디에서 하이쌤, 하이쌤에서 알럼나이, 사회인 멘토단까지.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의 특징은 참여자가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연결고리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장학사업을 넘어 지역 기반 커뮤니티가 되기를 꾀하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이 만든 다양한 커뮤니티를 소개합니다.



- 078 멘토링데이 IN 로컬
- 082 스쿨어택 이벤트
- 084 하이어 커뮤니티 소모임
- 086 SOS 장학
- 090 알럼나이 인터뷰-유강현·함채윤 알럼나이
- 092 사회인 멘토단 인터뷰-송정민·홍주은·이재민·박지영 멘토
- 096 선생님 인터뷰-박정희·이찬영 선생님



‘멘토링데이 IN 로컬’이란, 지역의 사회인 멘토님과 오프라인으로 만나 다양한 주제로 멘토링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삼각 멘토링 모델을 구성하고, 지역 커뮤니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특별히 홍보대사 ‘하이ON’이 직접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시간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영월과 보령, 두 곳에서 열린 이번 멘토링데이 IN 로컬의 평화롭고 영감 넘치는 현장을 소개합니다!



멘토링데이 IN 로컬
로컬 멘토와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멘토링데이 IN 영월
with 한은경 멘토(위로약방 대표)
2024년 9월 28일(토)

위로약방 대표 한은경 멘토님께서 창업을 시작한 계기, 영월에 위로약방을 열게 된 이야기 등을 나눠주셨어요. 지역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걸까요? 역사? 아이템? 관계? 사실 셋 모두 중요하지만, 멘토님께서 강조하시는 건 '관계'였어요. 외지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는 걸 고려해야 하고, 지역 주민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지역 창업이 성공하고 유지되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2시간 동안 지역 창업과 지역 상생에 관해 하나부터 열까지 이야기를 나눠주신 멘토님과 의미 있는 공간에서 하나씩 배워가는 하이쌤 여러분이 멋있었어요! 언젠가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내가 사는 지역을 살리고 싶은 꿈을 꾸 친구들이라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겠죠? 홍보대사 하이ON이 준비한 네트워킹에서는 서로의 멘토링 고민을 나누고, 조언을 전하는 처방전 쓰기 시간을 가졌어요. 멘토링이라는 교집합이 있어서 더욱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었답니다.



참여자 후기

- 저도 미래에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활용한 상품을 제작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영월의 지역 특산품도 활용하고, 로컬에 녹아들어서 동네 주민과 동아리를 만들고 상생하는 과정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이디의 지역이기도 하고, 이전부터 궁금했던 지역이었는데 소그룹 멘토링을 통해 영월을 방문하고 하이쌤들과도 만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위로약방의 썬첵과 음료수의 맛이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기회가 된다면 가족과도 와보고 싶어요!
- 멘토님께서 영월에 정착하고 주민들과 교류하기 위해 겪었던 여러 일화에 대해 소개해 주셨는데 그 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지역 상생이란 단순히 물질적인 거래가 아닌,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연결되는 과정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멘토링을 통해 '지역 상생'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개인이 주도하는 작은 노력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지역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어 더욱 뜻깊은 멘토링이었어요!

멘토링데이 IN 보령
with 임호영 멘토(모산조형미술관 관장)
2025년 1월 17일(금)

모산조형미술관은 보령시의 개화예술공원에 있는 전 세계 조각 작품이 전시된 미술관이예요. 보령 멘토링데이엔 모산조형미술관 관장 임호영 멘토님이 직접 큐레이팅까지 해주셨답니다. 보령시는 남포 오석의 주산지로, 오석은 빛깔이 검다고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하이쌤들은 멘토링을 통해 폐광지역 보령이

벼루로 유명하다는 새로운 사실을 배웠어요. 이어진 참여자 네트워킹에서는 홍보대사 하이ON 기획팀이 열정적으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준비해 준 덕분에 하이쌤과 하이디는 더욱 친해질 수 있었어요! 서로 대화하며 경청하고 배려하며 가까워지는 하이쌤과 하이디의 모습이 너무나도 예뻐했습니다.



참여자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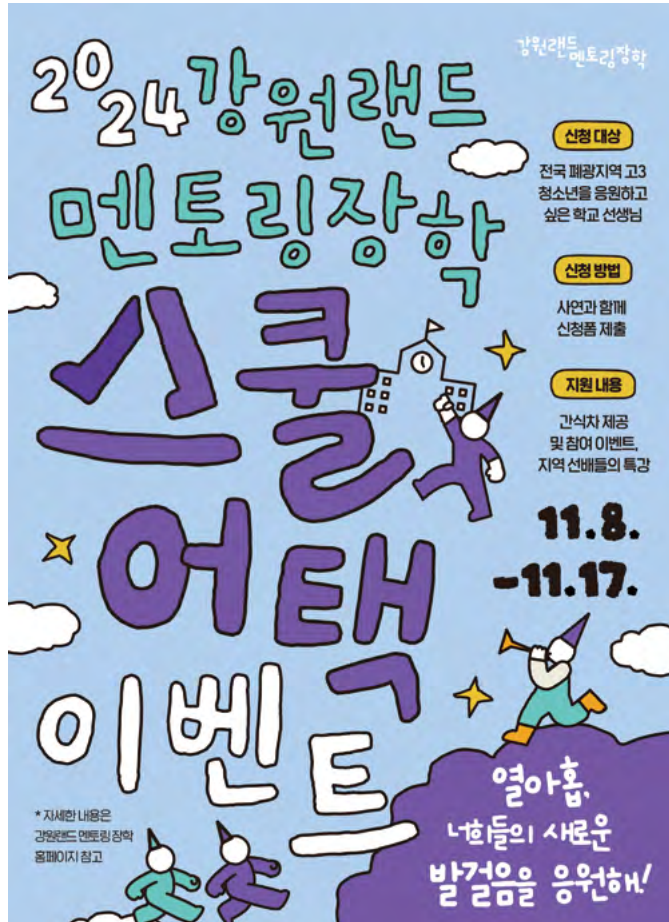
- 관장님께서 미술관을 운영하시면서 보령이라는 지역 특이성에 따른 타겟층을 적절히 선별하신 점,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연령층을 아우르는 미술관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동안 미술관은 미술품 전시에만 역할이 한정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편견을 깰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관장님의 예술프로그램 기획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령의 유명한 돌을 이용해 예술품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시는 철학이 돋보였고, 이를 보령과 한국을 넘어 세계 여러 작가에게 알리고, 투자하며 영향력을 넓히시는 모습을 본받고 싶었습니다.

스쿨어택 이벤트

열아홉, 너희의 발걸음을 응원해!

학생들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삼일고등학교 한 선생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2024년 12월의 어느 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폐광지역 청소년에게 선생님의 마음을 담은 응원을 전하러 삼척의 삼일고등학교로 찾아갔어요.

삼일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두근대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삼일고등학교로 떠났어요. 응원의 마음을 대신할 따뜻한 간식들과 예비 대학생들을 위한 폐광지역 선배 특강까지 알찬 시간을 준비했는데, 과연 삼일고등학교 친구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마음이 전해졌을까요? 폐광지역 청소년을 향한 진심 어린 선생님들, 폐광지역의 순수하고 맑은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는 경험은 폐광지역이라는 커뮤니티는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진행 일정 2024년 12월 6일
진행 장소 삼척 삼일고등학교

신청자 소개

- 안녕하세요. 저는 삼일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김성훈입니다. 이번에 어느덧 4년째 고3 담임을 맡았습니다. 힘들지만 보람 있는 고3 담임을 맡으면서 올해도 훌쩍 지나가고 내년을 또 기약해야 할 시기가 왔는데요. 지난 7월 22일에 천사 같은 아이가 태어났고 내년에 육아휴직으로 잠시 학생들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잠시 이별하는 아쉬움에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을 학생들에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스무 살을 앞둔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 어제 수능이었는데 우리 친구들 정말 고생 많았어. 수능은 더 넓은 세상으로 가는 시작 단계이자 아주 작은 관문일 뿐이니까, 자신의 실력보다 못 본 사람들 절대 실망하지 말고, 잘 본 사람들은 시작이라는 단추를 잘 끼웠으니까 앞으로 하던 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될 거야. 스무 살 성인이 되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 모두 도전해 보자. 선생님이 항상 응원한다!



1 두근두근 설렘과 응원의 마음 담은 스쿨어택 현장
2 현장 이벤트에 참여하는 청소년
3 대학생 선배 특강을 진행 중인 김윤희, 최우영 하이섬

후기

- 스쿨어택을 통해 대학 생활과 강원랜드 멘토링 활동에 대해 자세히 알고 흥미를 얻을 수 있었고, 간식차 이벤트와 대학생 선배분들의 특강 등 여러 재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어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
- 장학사업에 대한 정보와 대학 생활의 팁 같은 유용한 정보를 얻어서 좋았어요!
- 대학생 선배들의 특강을 통해 강원랜드 멘토링 활동 및 대학 생활 등에 대해 알 수 있어 좋았다.
- 간식차 이벤트와 현장 스태프 미션 이벤트를 하면서 폐광지역 선배님들과 친해져서 대학생 특강을 더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다.

Higher 커뮤니티 소모임
**모일수록 더 단단해지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커뮤니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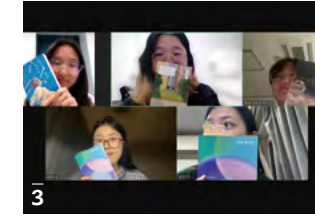
“하이섬 시절에도, 알럼나이가 된 이후에도 강멘장은 여전히 제게 성장이자 나눔이에요.”
 성장하기를 원하는 하이디, 하이섬, 알럼나이가 함께 3개월간 자신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소모임을 이어가며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커뮤니티는 한층 더 확장되고 단단해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함께 있을 때, 두려울 것이 없다’는 어느 영화 속 대사처럼,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 교류하며 응원을 나눈다는 것이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경제, 독서, 문화체험 등 다양한 관심사 아래 모인 하이디와 하이섬, 알럼나이의 소모임은 작지만 강한, 떨어져 있어도 결속력 강한, 우리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커뮤니티의 힘과 새로운 배움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 주기 충분했습니다.
 폐광지역 출신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자랑스럽고 따뜻한 키워드가 되길 바랍니다.

진행 일정 2024년 9월~2025년 1월



2 경제 스터디
 함께 배움 머니그로브

링커(모임장) 유강현 알럼나이
 참여자 이현지 알럼나이,
 박민성 알럼나이,
 신윤식 하이섬, 김보경 하이섬,
 김태수 하이섬



3 독서 모임
 우리 같이 읽말할래

링커(모임장) 신나현 알럼나이
 참여자 장유리 알럼나이,
 이은진 하이디, 박혜빈 하이섬,
 이세진 하이섬, 장혜지 하이섬



4 문화 체험
 모임 문화생활로 다채롭게

링커(모임장) 민주현 알럼나이
 참여자 이바울 알럼나이,
 만하늘 하이디, 정다운 하이디,
 이원희 하이섬, 이준현 하이섬,
 이희수 하이섬, 김수란 하이섬

후기

- 이번 소모임을 통해 구성원들과 함께하면서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라면 시도하기 어려웠을 체험, 공연 관람 등을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너무나도 다정한 친구들을 만나 행복했어요.
- 하이디에서 알럼나이로 성장해 각자의 몫을 해내고 계신 분들을 만나 신기한 경험이었고, 경제에 대해 박사가 되지는 못해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그 분야에 자신을 노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 폐광지역에서 접하기 힘들던 전시회나 연극 같은 문화를 경험하며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었어요. 하이섬과 함께 문화 체험을 해서 더 의미 있었어요. 덕분에 어려움 없이 즐겁게 소모임에 임할 수 있었답니다.
- 부스팅 캠프 외에는 다른 하이디 하이섬, 알럼나이까지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저와 다른 분야의 하이디 하이섬 알럼나이를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저의 학창 시절을 떠올리며 ‘문화생활로 다채롭게’라는 소모임을 만들었는데, 특히 하이디들이 많이 참여해 주고, 다양한 경험을 했다는 것도 기뻐요.
- 처음 소모임을 시작했을 때 온라인으로만 만난다는 게 아쉽게도 느껴졌는데 오히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얼굴을 보고, 책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모임을 이끌어준 링커 나현샘도,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듣고 반응해 주며 분위기를 이끌어준 세진샘, 혜빈샘, 유리샘, 그리고 온진 하이디 모두 고마웠어요!

- 1 즐거운 오리엔테이션 현장
- 2 경제에 대해 공부한 ‘함께 배움 머니그로브’
- 3 함께 읽고, 감상을 말해보는 독서 소모임, ‘우리 같이 읽말할래?’
- 4 혼자서는 어려웠던 연극, 원데이 클래스, 전시 등을 함께 관람하고 경험한 ‘문화생활로 다채롭게’

도와줘, 강원랜드! 도움이 필요한 곳에, SOS 장학 출동

강원랜드 SOS 장학은 갑작스러운 가정 위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중·고·대학생)이 지속해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학업 장려금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입니다.

긴급 위기 상황에 처한 전국 7개 시군 폐광지역 소재 중·고교 재학생과 출신 대학생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발판도 제공하러 노력했고요. 그래서 2024년 SOS 장학생으로 선발된 6명의 청소년이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하이디로 활동하며 더 깊고 넓은 지원을 받도록 도왔습니다.

2024 SOS 장학생 장학금 모집
2024년 9월 - 12월 상시모집

모집대상 갑작스러운 가정경제 위기상황(단일차 사망, 질병 등)으로 직·간접적 손실액(학업비용 제외)이 100만원 이상인 청소년(중·고·대학생) 또는 전국 폐광지역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전국 폐광지역 소재 고졸대학과 졸업생 대학생(대학 1학)

지원내용 1인당 최소 100만원 - 최대 300만원의 장학금(사내외 각종 및 학업비용 포함)으로 정기

신청방법 중·고등학생 기관추천 대학생 기관추천 및 개인신청

문의 강원랜드 SOS 장학 사무국 ☎ 070-4333-2900 / 010-8025-5554 or high1@jumps.org

SOS 장학 2020~2024 임팩트

누적 지원 장학생

93명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93명의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여 지원했습니다.

누적 지원 장학금

162,000,000원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위기 청소년에게 1억6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2024 강원랜드 SOS 장학

장학금 지원 총 금액

50,000,000원

선발 인원

23인

(중학생 15인, 고등학생 7인, 대학생 1인)

SOS 장학생 후기

장학금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경험하다

- 집에서 끼니를 먹기 힘들 때 밖에서 밥을 먹거나 필요한 교재를 사고 읽고 싶은 책을 사서 읽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의 차량 이동이 어려울 때 택시를 타고 겨울에 입을 옷도 구매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용돈 받는 것도 죄책감이 들어 함부로 사용할 수 없었지만, 장학금을 받고 전과 같이 생활할 수 있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가족에게 밥도 사고 취미 생활도 시작하며 어둡기만 할 줄 알았던 미래가 점점 밝아지고 나아갈 희망도 생긴 것 같습니다. 더 발전하고 나아지는 모습으로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어요.
- SOS 장학 덕분에 나은 환경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원비를 바로바로 내지 못해서 선생님에게도 죄송했는데 감사합니다. 이번에 고등학교에 가는데, 아무래도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컸거든요. 덕분에 준비할 수 있어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 아버지 빚을 갚고 핸드폰비, 급식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장학금으로 해결할 수 있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공부하는 데에 걱정이 많이 줄었고요. 죽고 싶은 심정에서 앞으로 더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심어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돈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죽어야 할까,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조금 부끄럽긴 합니다. 나를 생각해 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는데 못한 생각을 잊게 해주시고 더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미래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모두에게 이 빛을 갠고 싶습니다.

- 가족을 잃고 나서 혼자라고 생각한 때가 많았습니다. SOS 장학금 덕분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월 7일부터 처음으로 컴퓨터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해 본 지 오래되어서 처음엔 좀 당황했지만 계속 학원에 다니면서 익숙하게 만들겠습니다.

SOS 장학 추천인 후기

추천 학생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다

- 아이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구입할 수 있어서 마음에 여유가 생긴 모습이 보였습니다. 같은 옷만 입고 다니다가 새 겨울옷을 챙겨 입고 온 것, 친구들 주려고 과자 여러 가지를 사 와서 나눠준 것, 미용실에서 머리를 정돈하고 온 것 등등 장학금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변화들이 많았습니다.
- 안 그래도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학생이 장학금을 받음으로써 주변에서도 도와준다고 느꼈는지 조금 더 밝아지고 이겨내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 한부모가정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학생에게 선발의 기회를 주어, 해당 학생이 가진 특수교사라는 꿈을 이루는 데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독상을 받을 정도로

독서에 진심인 학생이 독서를 마음껏 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학생이 장학금을 통해 학원에 계속 다닐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좋아했습니다. 방학에도 학원을 다니며 학업 성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니 기특한 마음도 듭니다.



유강현 알럼나이

하이샘에서 알럼나이까지, 우리를 의미 있게 이어주는 커뮤니티예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에 하이샘으로 활동했던 유강현입니다. 현재는 알럼나이로도 활동하고 있고, 본업으로는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알럼나이로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인상적인 순간은 언제인가요?

제가 가르쳤던 하이디들이 벌써 대학을 졸업한 것을 보았을 때, 시간이 참 빠르다는 걸 실감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친구들이었는데, 각자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어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을 색상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황색'이 떠오릅니다. 개인적으로 주황색은 따뜻하면서도 에너지가 넘치는 색이라고 생각하는데,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활기찬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시너지를 내는 모습이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닳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커뮤니티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커뮤니티 소모임이나 코딩 모임 같은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고민을 해결할 때 소속감을 느낍니다. 단순히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넘어,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유대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졸업 후에도 이어지는 네트워크를 보면서 이 커뮤니티가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결이라는 걸 실감합니다.

- 1 커뮤니티 소모임 오리엔테이션에서
- 2 유강현 알럼나이



함채윤 알럼나이

우리 모두를 금빛으로 빛나게 만들어 줬죠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년도 하이샘으로 활동해 현재는 3년 차 알럼나이가 된 함채윤이라고 합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을 떠올리면 어떤 기분과 감정이 드나요?

포근함. 아늑한 집으로 돌아가는 느낌을 느낍니다. 알럼나이가 되어서 더 많이 느껴지는 감정 같은데, 이전 강멘장 구성원들이 정말 가족같이 느껴져요. 매니저님들께 오랜만에 연락을 받아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동료 하이샘들, 하이디들 모두 오랜만에 보아도 어제 만난 것처럼 반가워요. 가족처럼 멀리서도 응원해주고, 만나면 또 따뜻하게 대해줘서 언제나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을 색상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금색. 반짝반짝 빛나는 색이고, '꿈'이라는 건 성취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질 만큼 존재 자체가 귀한 것인데, 저에게 강멘장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돌아보니 모든 순간이 금빛처럼 반짝거리고, 소중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제 귀한 청년기 노력의 순간들이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속에서 금메달, 금빛 훈장이 되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저를 더 가치 있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후배 장학생, 하이디, 하이샘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누구보다 잘 해낼 겁니다. 하이샘들은 바쁜 대학 생활 중에 멘토링 준비로 고심할 거고, 하이디들은 학교 공부에 더해 멘토링 학습까지 더 추가해야 하니 모두들 바쁘고 힘에 부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모여 한층 더 본인을 성장시켜 줄 거라고 먼저 지나온 알럼나이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강멘장을 통해 더 멋진 존재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 1 2023 미국 해외탐방에서의 함채윤 알럼나이
- 2 2023 부스팅 캠프에서 알럼나이 스태프로 참여한 함채윤 알럼나이



송정민 멘토

경험의 선순환을 제공해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멘토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점프 사회인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송정민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더 쉽게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미션을 가진 회사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기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의 사회인 멘토로 참여한 소감은 어떠셨나요?

'취미로 브랜딩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멘토링을 하게 되었는데, 멘티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특히 한 멘티가 '취미라는 가벼운 주제가 이렇게 제 인생을 돌아보게 만들 줄 몰랐어요'라고 말해줬는데, 그 말이 아직도 오래 기억에 남아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하이디, 하이쌤, 사회인 멘토가 나눔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나눔의 선순환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와 만났던 하이쌤 중 한 분이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멘토님, 혹시 제가 오늘 나는 이야기를 하이디에게 해도 될까요? 멘토님과 나는 대화가 하이디에게도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정말 뭉클했어요. 하이디는 하이쌤에게, 하이쌤은 멘토에게 영향을 받듯이, 사실 멘토도

하이쌤들에게 좋은 멘토링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거든요. 이렇게 멘토와 멘티가 한 공간에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대화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사회인 멘토가 되고 싶으신가요?

더 자주, 더 많이 멘티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길이 막막하고 두렵지 않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고 싶어요. 단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던 저를 사회인 멘토링을 통해 만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멘토라고 믿어주는 멘티들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기대에 부끄럽지 않도록, 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폐광지역의 미래세대가 어떤 어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나요? 응원 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지금 어떤 멘토를 만나든, 정말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좋은 이야기라도 너무 많으면 오히려 헛갈릴 수도 있죠. 많은 정보를 얻고, 좋은 사례들을 들으며 배워가는 건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주관을 잃지 않고, 선택한 길을 끝까지 나아가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정민 멘토님이 취미를 주제로 진행한 오프라인 멘토링

홍주는 멘토

신뢰와 지혜 만드는 기회를 줘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멘토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실 수 있나요?

루트임팩트라는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홍주는이라고 합니다. 경력 보유 여성 커리어 리턴십, 포용적인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DEI(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교육 등을 운영하는 프로젝트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멘토님이 대학생으로 돌아가 사회인 멘토링을 듣는다면, 어떤 멘토링이 필요했을까요? 그 멘토링을 통해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까요?

다양한 분야의 멘토님들을 폭넓게 만나보는 기회가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나와 다른 강점과 목표를 가진 분들이 어떤 노력을 통해 커리어를 시작했는지, 고유한 일하는 방식과 실제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간접 경험만으로도 혼자서는 깨달지 못했을 '알'의 의미와 가치를 얻을 수 있더라고요.

멘토님의 사회인 멘토링은 어떤 특징, 장점,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커리어의 '전형성'을 다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본래 교사를 꿈꾸었지만, 비사범대에 진학하게 됐고 우연히 접하게 된 교육 소셜벤처에서 인턴십을 시작한 계기로 7년간 첫 직장 생활을 했어요. 처음의 목표와 달리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론 명확한 성장과 성취, 새롭게 발견하고 얻었던 기회, 조직 내외에서 인정받은 역량과 경험 등을 자부심을 갖고 나눌 수 있거든요.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관점으로 커리어를 설계하고 싶은 멘티, 혹은 불확실성과 변화를 잘 다루고 싶은 멘티라면 멘티라면 자신만의 답을 찾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하이디, 하이쌤, 사회인 멘토가 나눔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나눔의 선순환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은 자신과 닮은 세계관, 환경의 존재로부터 안정감을 얻고 협력하며 정체성을 확장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긍정적인 감정으로 존중하고 상호작용하는 세 주체의 관계는 한 사람 안에 오래 깃드는 신뢰와 지혜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동체적 경험이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고도 믿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회인 멘토가 되고 싶으신가요?

어쩌다 보니 하이쌤과 하이디 여러분보다 조금 더 먼저 태어나 세상을 경험하고 지내게 되었을 뿐, 저의 경험을 과신하거나 과장하여 전하고 싶진 않습니다. 순수한 우연과 운이 따라주었기에 가능했던 일부러,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던 좌절의 순간까지 진솔하게 나누면서 삶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멘토이고 싶습니다.

폐광지역의 미래세대가 어떤 어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나요? 응원 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분주하게 지내다 보면 함께 했던 얼굴과 이름은 흐려질 수 있겠지만, 멘토와 멘티로서 보냈던 어느 하루의 사소한 기쁨만은 기억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내어 마주했던 그 경험이 먼 훗날의 자신과 타인을 돌보고 지키는 근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스스로를 함부로 여기지 않고, 타인에게 최소한의 친절을 베풀 줄 아는 존재가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재민 멘토

하이샘에서 멘토로, 함께 고민하고 성장해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멘토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실 수 있나요?
 강원도 태백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후, 고려대학교 재학 중에 하이샘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사회인 멘토로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요. 현재는 LG CNS 엔트루 컨설팅에서 IT 컨설턴트로 3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기업의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끌기 위한 IT 전략과 방안을 수립하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이샘에서 사회인 멘토가 되셨다고 들었어요. 후배 하이샘들과의 멘토링은 어떠셨나요?
 저도 하이샘으로 활동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후배들과 공감대를 잘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멘토링에 참여한 후배들에게 하이샘 활동을 할 때 멘티가 된 기분을 느껴보라고 하면서 좀 더 친근한 분위기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멘토님의 사회인 멘토링은 어떤 특징, 장점,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같은 폐광지역 출신으로서, 하이샘 선배이자 사회인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좀 더 가까운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후배들과의 소통이 더욱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또한, 격식을 갖춘 멘토링보다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서로 편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을 중요시하여, 이러한 접근 방식이 멘토링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하이디, 하이샘, 사회인 멘토가 나눔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나눔의 선순환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하이샘 시절, 사회인 멘토의 멘티로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 하이디가 하이샘이 되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막막하게 느껴지지만,

누군가 먼저 걸어본 사람의 경험을 듣는 것은 선택의 기로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항상 하이샘이든, 사회인 멘토링이든 어떠한 멘토링을 할 때마다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이 멘토가 되어서 멘티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선순환은 지역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회인 멘토가 되고 싶으신가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의 사회인 멘토로서 후배님들이 진로 선택을 할 때 제가 조금이라도 기억되길 바랍니다. 저도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직장 생활을 몇 년 더 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며 성장해왔습니다. 이처럼, 후배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제가 가진 경험이 그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멘토링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하이샘 출신 이재민 멘토님과 IT 주제로 진행한 온라인 멘토링

박지영 멘토

폐광지역에 새로운 학습의 장 열어줬어요



하이샘 출신 박지영 멘토님과 진행한 방송작가 주제의 오프라인 멘토링

알고 있었고, 꼭 도전해 봐야지 하며 하이샘을 거쳐 사회인 멘토가 되었어요. 저는 폐광지역이라는 지방에서 다양한 교육의 인프라가 구축되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을 통해 꾸준히 나아지면서 색다른 학습의 장이 열리고 있다는 생각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회인 멘토가 되고 싶으신가요?

힘들게 들고 돌아 하고싶은 직업을 찾았을 때, 앞서 경험한 선배들이 많지 않아 꽤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리에서 더 비상하며, 후배 하이샘들에게 아낌없이 조언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작가이자 멘토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비단 작가뿐만 아니라, 방송 일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요!

멘토님처럼 폐광지역에서 나고 자란 후배 청소년, 대학생들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소그룹 멘토링 때에도 하이샘 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세상을 폭넓게 바라보고, 넓은 시각에서 많은 직군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 보셨으면 합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히 성장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혹시라도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점프를 통해 연락하고, 이 작고 소중한 인연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모종이 되고 씨앗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멘토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KBS 시사교양국에서 근무 중인 박지영 작가입니다. 저는 2022년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에서 삼척 출신 하이샘으로 활동했고, 2023년에는 조기 취업으로 인해 장학생 활동을 진행하기 어려워 알람나이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점프 사회인 멘토로 활동 중입니다.

꽤 다양한 경험을 거쳤던 이야기를 전했는데,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며 자란 하이샘들이 현재 진로를 정하는 데에 갈등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마치 시간이 쫓겨 취업전선에 뛰어들 제 과거 같아서 공감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속상하기도 했어요.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많은 일을 해내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너무 조금할 필요 없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하이샘에서 사회인 멘토가 되셨다고 들었어요. 후배 하이샘들과의 멘토링은 어떠셨나요?

저도 하이샘들처럼 폐광지역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기에 문화 및 학습 인프라가 수도권에 비해 부족하다는 사실을 몸소 체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체능에 대한 배움의 욕구가 컸기에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하이디, 하이샘, 사회인 멘토가 나눔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나눔의 선순환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눔의 선순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장학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딱 맞는 키워드라고 생각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사업에 대해 익히

박정희 선생님

자신감을 키우고 꿈을 꾸게 해줘요

어느 지역에서 어떤 학생들을 만나고 계신가요? 해당 지역에서의 교직 생활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나눠주세요.

강원도 삼척시 미로중학교에서 사회와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명당인 준경묘에 학생들과 함께 올라갔던 일이 기억에 가장 남습니다. 학생들이 등산은 힘들었지만 우리 고장에 대해 알게 되어 보람 있었던 얘기를 할 때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 추천해 주신 학생이 사업 참여 후에 변화와 성장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하이(익명) 학생은 매우 내향적이며 수줍음이 많았으나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자신감이 향상되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수업 발표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장학(익명) 학생은 학업에 대한 열정이 많은 학생으로 멘토링을 하면서 바이올린을 배우는 등 자신의 진로를 위해 다양한 재능을 키우면서 장학사업으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타 장학사업과 비교했을 때,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의 차별점이나 강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되는 장학금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공부를 더 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멘토(하이쌤)와의 신뢰를 통해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지속적인 관리 덕분에 학생들이 스스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학생들이 매월 장학금 사용 내역을 기입하는 것도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이 폐광지역 미래세대의 변화와 성장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멘틴 하이디가 성장해서 하이쌤인 멘토로 선순환하는 과정을 보면서 긍정적이며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이디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동기 부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폐광지역 미래세대가 어떤 어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나요?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꾸준히 꿈을 위해 노력해 자신이 받은 만큼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 기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꿈을 품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2024 수료식에 참여한 박정희 선생님

이찬영 선생님

고민을 확신으로 바꿀 기회를 제공해요



어느 지역에서 어떤 학생들을 만나고 계신가요? 해당 지역에서의 교직 생활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화순 지역에서 파릇파릇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이찬영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 아이들은 항상 에너지가 넘칩니다. 저는 종종 점심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축구나 농구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운동하다 보면, 아이들 가까운 곳에서 숨결을 느낄 수 있어 항상 행복합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화순으로 전입을 온 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이 많은 아이들을 돕고

있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학교에는 걸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사정이 어려운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자신의 꿈을 향해 한 발자국씩 걸어 나가는 아이들에게 힘을 주고 싶었습니다. 담임 교사를 하면서 어려운 친구들을 매해 1명씩, 2명의 학생을 추천하였습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 추천해 주신 학생이 사업 참여 후에 변화와 성장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학생이 베풀 줄 아는 친구로 성장한 점이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자신이 장학금을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친구들에게 조그만 간식을 준비해 왔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간식을 나누어 먹으며 행복했던 기억인데, 특히 자신이 받은 베풀을 함께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이 폐광지역 미래세대의 변화와 성장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이 중에는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아이들도 있고, 아직은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결정하지 못해 고민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이 이러한 아이들에게 자신의 꿈을 결정하거나, 고민을 확신으로 바꿔 주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로서 참 감사한 부분입니다.

폐광지역 미래세대가 어떤 어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나요?

베풀고 나눌 줄 아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순 지역 아이들을 보면 다른 지역의 친구들보다 훨씬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알고 또 도움을 나눌 줄 아는, 나눔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의 그 모습과 마음을 변치 않고, 베풀고 나누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처럼요.

Record

성장의 기록들

10개월간의 장정을 마친 하이디와 하이쌤, 이들의 마음속엔 어떤 마음과 시간이
쌓였을까요? 하이디들이 적은 나의 성장 포트폴리오와 하이쌤이 작성한 활동 보고서를 통해
이 마음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나의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다

문경 서유현하이섬

중간고사 등 개인 일정도 많고 번아웃이 왔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하이디들과의 멘토링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기 때문에 힘내서 열심히 꾸준히 진행했어요. 멘토링 할 때는 하이디와 제에게만 온전히 신경 쓰는 시간이라서 힘든 것들을 잊으며 즐겁게 임했습니다!

문경 이성호하이섬

정말 옛날에는 말주변이 없기로 소문난 나였는데, 점차 말이 많아지고, 먼저 나서기도 하는 등 전과는 다른 모습이 되어있다는 것을 순간 체감했다. 개인적으로 바뀌기를 바라왔는데, 자연스럽게 변화가 생겨 좋다.

문경 안은영하이섬

다른 사람을 깊이 알아가는 경험은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누군가를 자세히 보고, 교류하고, 공부하는 이 시간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태백 김희수하이섬

멘토링 활동을 매번 할 때마다 하이섬인 제가 '하이디들에게 무언가 알려주는 사람'이기보다는 '하이디들과 함께 다방면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이디들 덕분에 정서적으로도 한층 더 성장한 한주였습니다.



학교와 지역, 변화의 흐름을 공유하다

정선 김현하이섬

이번 주 멘토링을 하면서 10개월의 멘토링을 마무리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하이디들과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고민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 주 동안 느낀 건 멘티에게 많은 것을 얻고 함께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선순환 고리의 성장이며 더불어 성장하는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멘토링을 모두 마치고 난 이후에도 꾸준히 후배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문경 이민솔하이섬

문경에서의 변화나 새로 생긴 장소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이야기가 풍부해졌고, 학습 고민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었던 것이 뿌듯했습니다.

정선 김기을하이섬

하이디가 저랑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쉽다고, 생각하면 너무 슬프다고 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멘토링의 궁극적인 목적이 폐광지역 학생들 간에 커뮤니티 형성인 만큼 꼭 멘토링이라는 수단으로 엮어 있지 않아도 언제든지 연락하고 공부 같은 거 물어봐도 된다고 말해주었어요. 하이디와 정서적으로 깊게 교류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아쉬움을 느끼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저의 아쉬움과 희망을 담아서 멘토로서 대담을 잘한 거겠죠?

삼척 김예은하이섬

이현이와 저는 독서라는 같은 취미를 공유하고 있어요. 서로가 읽은 책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 고향의 동네 서점을 공유하기도 해요. 이현이가 이번에 새로운 서점을 발견하여 저에게 소개해 줬어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저도 이현이가 방문한 서점을 방문하여 마음에 드는 책을 구매할 예정이에요.

배움과 성장을 넘나드는 멘토링의 힘을 느끼다

영월 이정민하이섬

사실 하이디가 독서를 좋아하는 학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하이디가 선생님과 함께 책을 읽으면서 그래도 꽤 재미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이번 방학에도 꾸준히 책을 읽어볼 계획이라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저를 믿고 재미있게 책을 읽어주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효영 하이디가 책 읽는 시간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큰 보람이고 행복이었습니다.

삼척 강유진하이섬

이번 주에 하이디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에 대해 배우며 모방학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동안은 학생들이 교사의 모습을 보고 따라 하는 것만이 모방학습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이번 주 하이디들의 모습을 보며 저도 하이디들의 좋은 모습만을 따라 하게 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모방학습은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에게 좋은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령 이수성하이섬

전반적으로 하이디들이 수업에 열정적인 한 주였다. 이 흥미를 수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해, 자신만의 취미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이디들이 수업을 잘 따라온다. 초반에 비하면 거부감을 느끼거나 귀찮아하는 모습도 많이 없어졌다. 일상 루틴 중 하나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하이디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기에 나 역시도 멘토링에 열정을 갖게 되는 것 같다. 앞으로도 이런 모습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보령 김성운하이섬

멘토링이라는 게 체력을 소모하며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설명하고 피드백을 주는 데 큰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이디와의 멘토링은 오히려 체력이 생겨납니다. 밝은 에너지와 예상치 못한 답변은 하이섬에게 힘과 공감을 일으켜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를 키웁니다.

하순 강민주하이섬

멘토링을 준비하고, 책을 읽으며 하이디와 선정한 책 3권뿐만 아니라 다른 책까지 재미가 붙게 되어 2주 동안 총 7권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면접 당시 제가 가진 것을 하이디에게 주는 일방적인 섬이 아닌, 양가적으로 주고받는 섬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단순히 서로가 가진 정보와 영향을 교류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업 주제 자체가 저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해 신선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태백 박세리하이섬

어느 학생이나 그렇지만, 하이디는 아직 어리고 또 특히나 칭찬을 받으면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하이디가 작은 성공을 했을 때마다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이기도 합니다. 처음엔 모든 것에 서툴고, 영어를 읽는 것조차 어려워하던 하이디가 이제는 문장의 5형식을 알고, 문장 구문을 이해한다는 것이 기특할 따름입니다.

삼척 심서영하이섬

하이디와 2년째 함께 수업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수업도 자주 빠지고 공부하는 것 자체에 흥미가 없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수업 출석률과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연스레 학교 성적도 좋아졌습니다. 영어와 국어 모두 1개씩 틀리고, 다른 과목들도 90점 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하이디의 성장 과정을 눈으로 보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하이샘과 마주한 도전, 함께 만든 변화

보령 배은결하이디

하이샘과 to부정사 부가의문문을 공부했다. 선생님과 공부한 덕분에 학교 진도를 따라가기 쉬워졌고 영어가 재미있었다. 10월 초에 본 1회고사는 평균95점이 나왔다. 전과목에서 4문제를 틀렸다. 제일 자신 없던 영어도 한 문제밖에 틀리지 않았다. 중학교에 들어와서 처음 본 시험을 잘 치러 기분이 좋았고, 2회고사도 잘 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꿈을 찾아가는 길에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을 만나다

영월 신승우하이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의 성장 프로젝트를 계기로 <세계를 품은 외교관>, <난민87> 등 많은 서적을 구입해 독서할 수 있었습니다. 장래희망인 외교관으로써 필요한 역량을 향상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의 성장프로젝트 과정의 활동과 장학지원으로 읽은 서적들을 바탕으로 향상시킨 역량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어 저의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보령 김인해하이디

면접 준비를 처음 해봐서 감도 안 잡히고 어려운 면접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할지 막막했는데, 같은 학과 선배님이자 하이샘이 부족한 지식이나 꿀팁을 알려주셔서 너무 유익했습니다. 면접 대본 작성하는 것에도 도움을 주셔서 행복하고, 마음의 안정이 됐어요. 실제 학교 모의면접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영월 박선민하이디

저는 원래 누가 시키지 않는 이상 먼저 나서는 걸 힘들어했는데, 요즘은 하이샘과 같이 멘토링도 하고 학교에서도 좋은 결과물을 내다보니 점점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꼭 먼저 나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태백 구령한하이디

저번에 복습하면서 배운 단어를 맞추는 게임을 했는데, 잘 맞추고 열심히 했다고 칭찬을 받아 좋았어요. 최근 영단어 시험을 치를 때 제 실력이 처음보다 성장한 것을 느낄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정선 김민주하이디

대학 진학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진로 학과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고민도 깊어졌다. 예전에는 나 혼자 혹은 부모님께 진로 관련 고민 사항을 털어놓았는데, 최근에는 하이샘과 진로 관련 이야기를 나누니 많은 도움이 되었다.

삼척 김의현하이디

이번 달에도 하이샘과 대학 진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막연하게 불안했던 마음도 선생님과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풀리는 것 같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이 와중에도 내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멘토링 수업도 내가 더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서 더 많이 성장하고 싶다.

태백 김진호하이디

12월 달은 꿈키움 WEEK를 통해 경제금융-경영학과에 대해 알게 되었다. 경제금융학과는 개인의 자산 관리를 중심으로, 경영학과는 더 나아가 사회의 주요 기업·기관에 대한 자산관리, 투자 등을 배우는 학과인 것 같았다. 이번 활동을 통해 사전교육 이후 다시 한번 올바른 자산관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나의 희망 진로 외에 다른 진로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영월 홍선우하이디

10월을 마치며 작년부터 쪽 하이샘과 독서 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엔 글 읽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 포기할까 생각도 했지만 지금은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좋아져 시나 소설 쓰기에도 도전해 보곤 합니다. 글을 읽고 해석하거나 아이디어를 글로 남기는 연습을 통해 더 넓은 디자인의 세계로 나갈 때 큰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선 권운서하이디

멘토링을 통해 정말 많은 부족한 점들을 메꿀 수 있었다. 특히 학습적인 부분에서 기초가 부족하기에 느끼는 격정과 후회가 해결되는 성장과정을 거친 것 같다.

같은 지역, 같은 마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문경 양예지하이디

앞으로 10개월간 함께 할 하이샘도 만나보고 같은 지역인 하이디 친구들도 처음 만났다. 멘토링하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동네라 신기하면서도 이야깃거리가 많아서 즐거운 멘토링 시간이 될 것만 같다. 내 미래 진로 계획도 천천히 세우면서 자연스럽게 성적에 관심이 가면서 많이 오르게 되었다. 성적이 오르면 공부도 즐거워지는 것 같고, 자신감이 생기는 느낌이다. 합기도를 하다 큰 부상을 입으면서 많이 절망했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나 자신을 칭찬하고 보듬어주는 뜻깊은 한 달이었다! 방학을 하면 운동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재학에 신경 쓰고 싶다.

정선 목하음하이디

하이샘이 졸업한 학교에 다니고 있다 보니 공통점이 많아 멘토링 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습니다. 선생님과 멘토링하는 것이 너무 재미 있고 행복합니다.

화순 이도현하이디

일단 하이샘과 수업을 통해 나의 영어 실력이 늘었다는 게 느껴졌다. 방학이 절반 정도 지났는데 가장 확원을 꾸준히 갔고, 그만큼 성과가 느껴지는 방학이다. 이제 곧 2학년이 되는데 2학년 준비를 하면서 내가 많이 달라졌으면 좋겠다.

태백 김도현하이디

요즘 하이샘과 같이 수학 수업을 해서 확실히 성적이 향상되었습니다! 하이샘이 수학을 정말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주셔서 저도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멘토링 시간이 즐겁습니다!

삼척 박혜림하이디

하이샘과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정서적으로도 성숙해질 수 있었고 선생님과 많이 친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같은 지역 하이샘이라 지역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고 많은 걸 알게 되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임팩트 보고서

하이셀, 하이드가 함께 만드는
내일의 성장

발행 2025년 3월

총괄 기획 (주)강원랜드 ESG정책팀

콘텐츠 제작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사무국

디자인 네거티브 에이치(negative H)

인쇄 (주)타라티피에스

저작권자 © 강원랜드

※ 2024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 임팩트 보고서의
저작권은 주관사에 있습니다. 임팩트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재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Copyright 2025 All rights reserved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은 전국 폐광지역 청소년의 성장 가능성을 돕는
따뜻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폐광지역 출신 대학생이 해당 지역 청소년을 만나 학습 멘토링을 진행합니다.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의 애칭은 하이드, 대학생은 하이쌤이라 부릅니다.

하이드와 하이쌤이 만나 서로의 성장과 변화를 응원하는

10개월의 시간을 담았습니다.